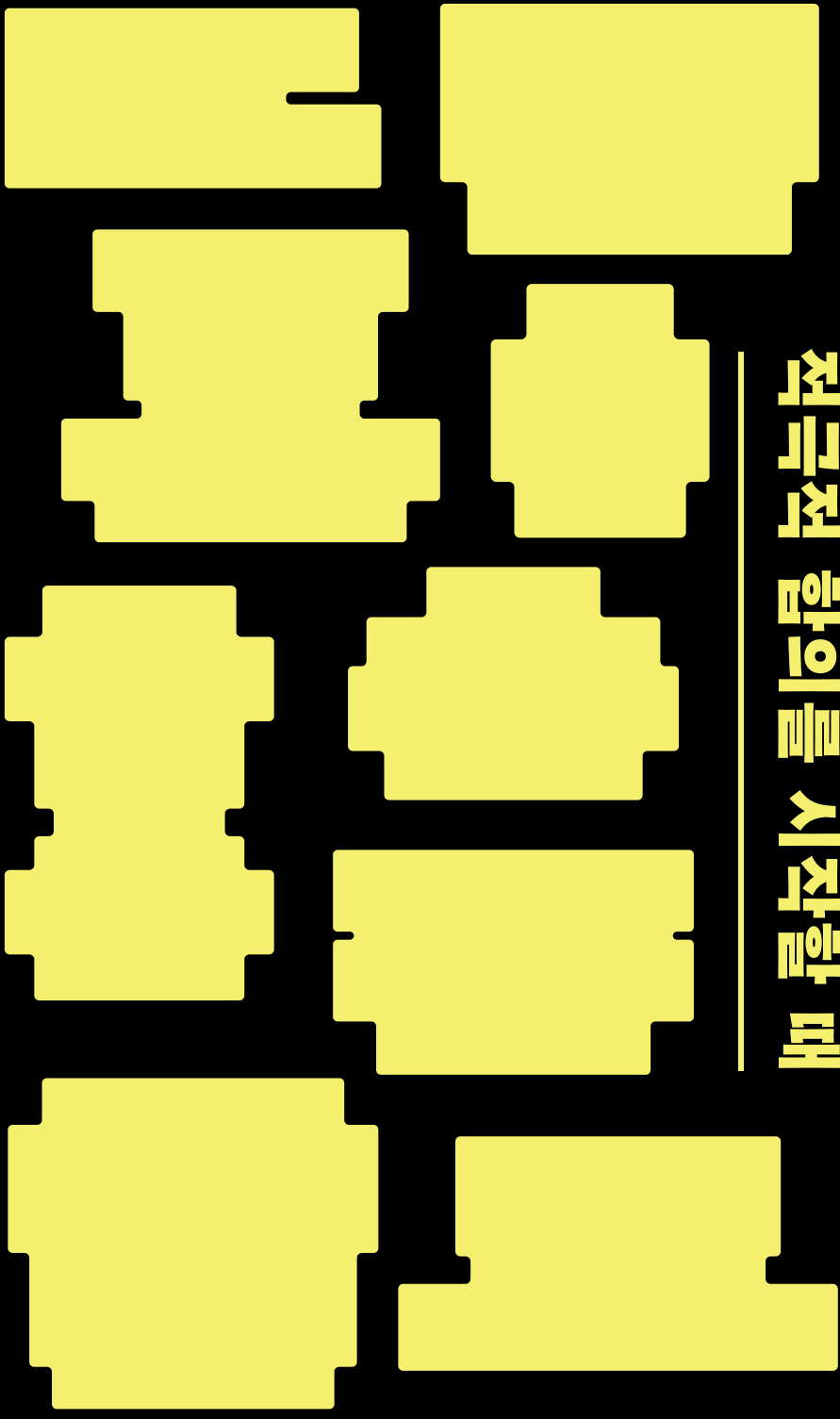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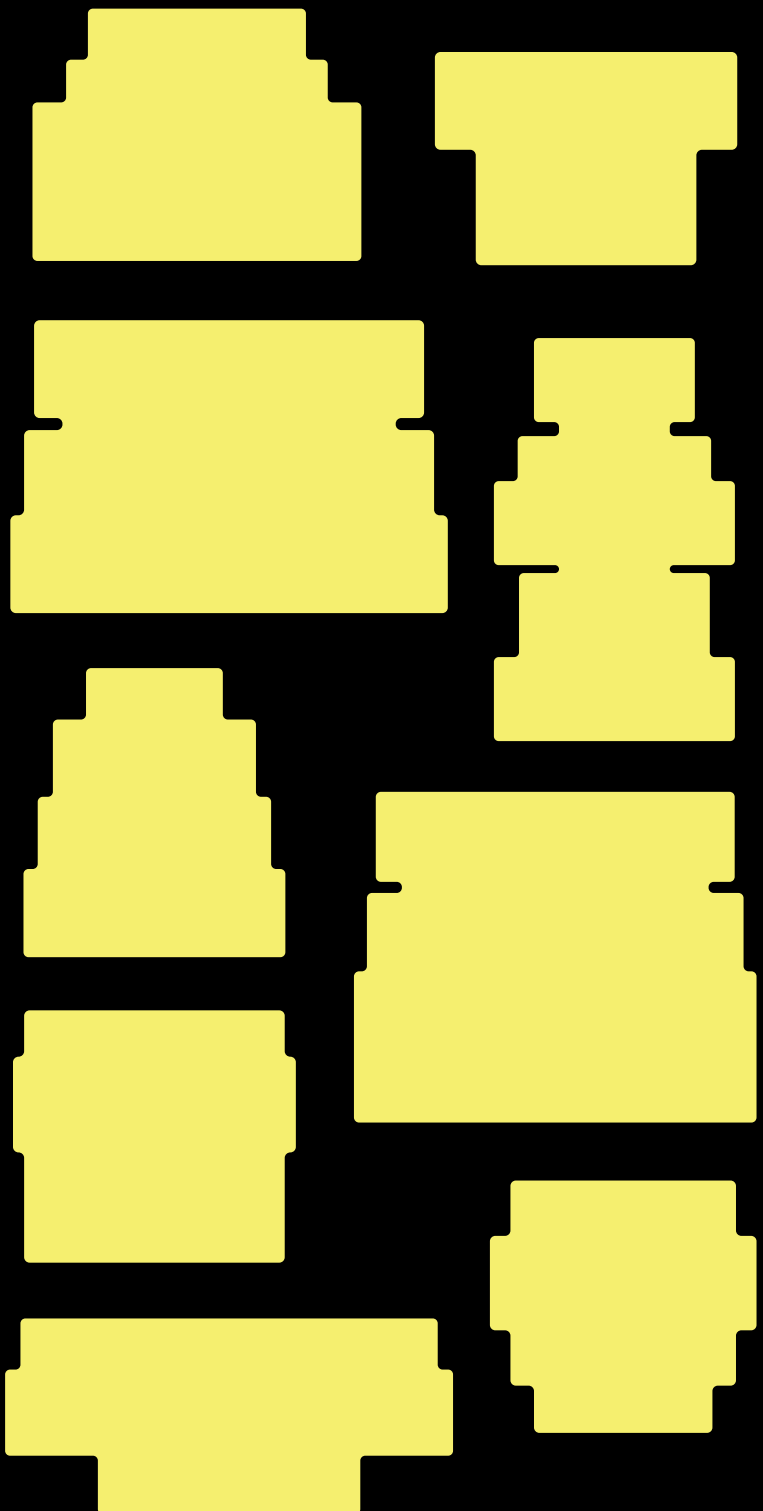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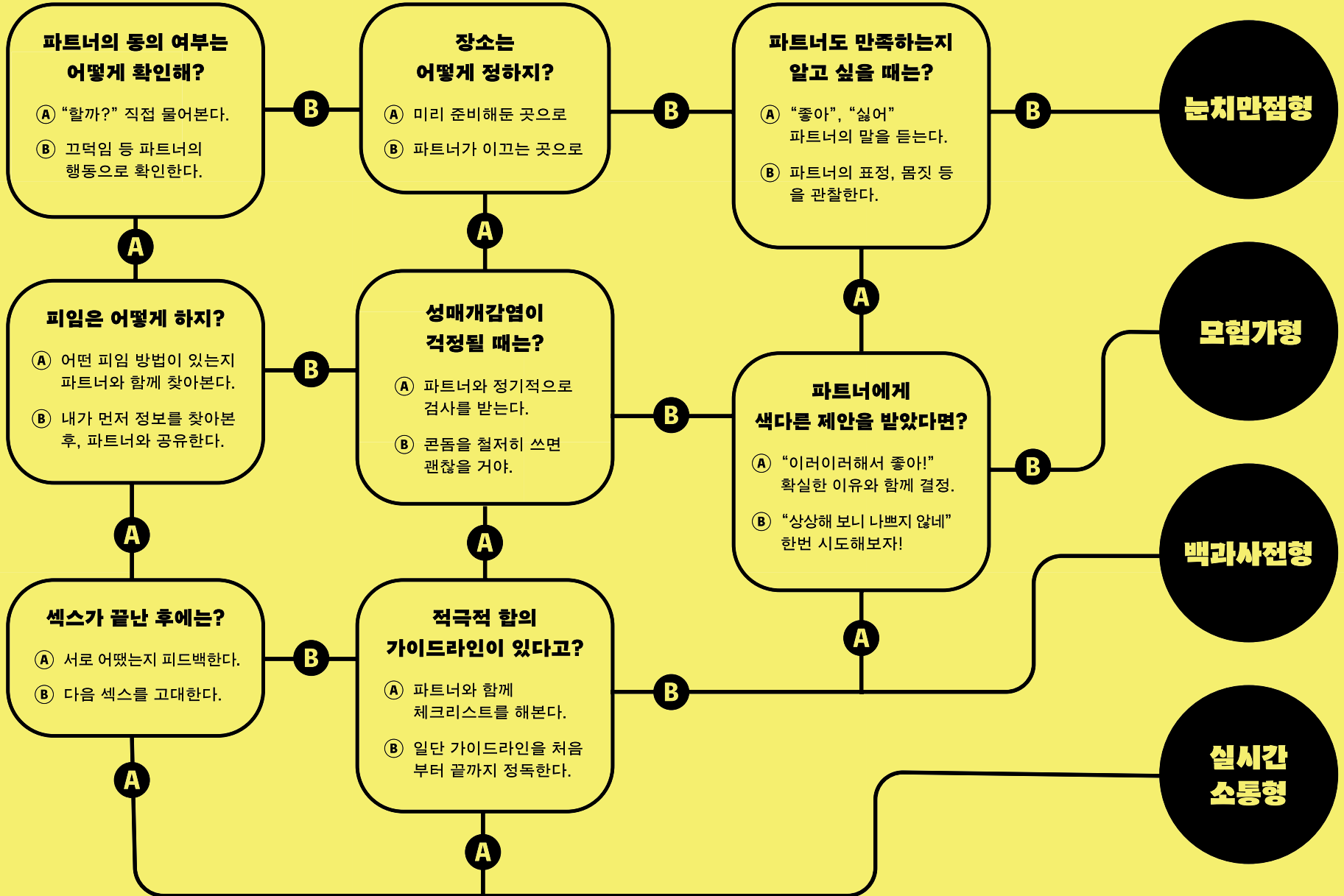
적극적 협의를 시작할 때



〈새로운 공공공간〉 반성폭력·성문화·이성포, 적극적 합의의 가이드라인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새 출발의 시작할 때

들어가며

미투운동 이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소위 ‘비동의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¹가 발의되었던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²이 발의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흐름은 이미 확고해졌다. 2021년 UN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동의 부재가 성폭력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동의와 비동의를 가른다고 여겨지고 있을까? 성적행위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상대방의 응답을 받아 기록하기 위한 성적 동의 어플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이들은 ‘성적 동의’는 상대방의 응답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Yes’라고

¹ 백혜련의원안(2021.6.8), 류호정의원안(2021.8.12), 소병철의원안(2021.9.15)

² 다음의 10개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홍철호의원안(2018.3.19), 강창일의원안(2013.3.20), 백혜련의원안(2018.3.22), 천정배의원안(2018.3.30), 송경희의원안(2018.8.17), 김수민의원안(2018.8.21), 이정미의원안(2018.8.27), 나경원의원안(2018.9.6), 박인숙의원안(2019.3.28), 김철민의원안(2019.6.4)

2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3

들어가며

말해진 성관계’라면 문제 없는 것일까?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성적 동의’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석 차이를 접해온 지 오래다. 많은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성폭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가 아니라 ‘폭행·협박’을 동반했는지로 판단되는 현행 형법상의 규정에서 피해자들의 경험, 해석, 언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곤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해자들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강간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음’, ‘단 둘이 술을 마셨음’, ‘연인 관계’, ‘서로 좋아하는 사이’ 등 동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의’는 때로는 성폭력을 설명하는 언어이지만 때로는 성폭력을 은폐하는 언어가 되고 만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적 동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는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적극적 합의란 어떠한 실천이자 지향인지 제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극적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알아보기는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과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적극적 합의’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실제 친밀한 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서 어떻게 적극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서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을 먼저 확인하면 이후 전개될 모든 내용이 더 쉽게 와닿을 것이다.

2장 준비하기는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과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성적 규범, 문화에 대해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질문을 통해 '적극적 합의'를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동의하기 위한 조건들을 점검한다. 평등한 관계인지, 원하는 성적 관계는 무엇인지 확인하며 모두에게 평등하고 즐거운 성적 실천을 준비할 수 있다.

적극적 합의가 생소하다면 나의 성적 동의 유형은 무엇인지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로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자의 다양한 경험이나 예상을 떠올리며 해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자문에 힘입어 제작되었다.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에 아낌없는 자문을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백애라 부연구위원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의 나영 활동가님, 서울대 여성학/사회학 배은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과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유니브페미의 김소희님,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의 보통님, 인권교육센터'들'10대 남성청소년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교육팀의 사슴님, 장애여성공감의 여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중요한 의견들은 후속 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설문조사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응답자들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신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성적 동의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알아보기

1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³

① 명시적으로

적극적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합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 또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내 느낌과 생각만으로 상대의 의사를 선불리 추측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나와 섹스하고 싶다는 유혹인가? 앞서 나가지 말자. 상대는 말 그대로 나를 집에 초대했을 뿐이다. 만약 상대가 나에게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섹스할지 말지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의식이 있을 때

적극적 합의는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가 잠들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다면 성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뿐 아니라, 부르면 대답은 하는데 주변 상황을

8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9

1
알아보기

③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합의는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동의한 성적 행위가 어떤 성격인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자신 또는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다른 선택도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④ 평등하게

적극적 합의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여야 하며, 성적 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대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한쪽이 콘돔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쪽이 못 들은 척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발언권과 결정권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완벽하게 평등한 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힘 또는 권력이 더 큰 사람은 상대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 표현을 훨씬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³ 이 글은 미디어 일다에 2021.05.27. 게시된 “성적 행위에서 YES or NO를 넘어 ‘적극적 합의’로!”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기사 전문은 ildaro.com/905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힘 또는 권력 차이가 명백한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성적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직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는 더 큰 위협에 처하거나 보복성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

권력자는 말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순수하게 동의를 구한 것뿐이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약자로서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이미 부담이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라면 애초부터 성적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⑤ 모든 과정에서, 항상

적극적 합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평소 성적 행위를 함께하는 연인 또는 부부 관계라는 이유로 선불리 합의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어제는 성적 행위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가 키스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섹스도 동의할 것이라고 넘겨짚어서도 안 된다. 상대는 키스는 좋은데 섹스는 싫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섹스하자”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은 섹스할 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체위를 하거나,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피임을 하지 않는 것까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보다 모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성적 동의를 취소, 철회,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서로 합의하고 성적 행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도중에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처음에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의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아까 합의했잖아”라고 억지로 성적 행위를 이어갈 권리는 없다.

10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11

1 알아보기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조사 배경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 운동과 함께 ‘적극적 합의’ 알리고 제안해왔다. 2017년에는 중요한성폭력판결시리즈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를 발간했다.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마빈 주키 판사는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근거하여 판단하면서 ‘성적 행위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동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Affirmative), 의식적이며(Conscious), 자발적인(Voluntary) 동의”를 말하며 “성행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상대방과 성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합의(Affirmative Consent)’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⁴. 이때 판결문 원문에서 사용된 “Affirmative Consent”를 ‘적극적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합의’로 번역하였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동의’가 성별규범에 따라 일방적인 제안과 수락 내지는 거절로 이해되고, 동의의 조건이나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 놓고 판단되는 지점을 짚어보고자 하였고, ‘적극적

⁴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중요한성폭력판결시리즈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214p

합의'라는 용어를 통해 동의에 이르는 상호적이고 자발적이고 평등한 과정을 강조하고자 했다.

2019년에는 현장에서 접하는 위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안들을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적극적 합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모든 성적 주체와 법제도, 학교, 직장, 가정, 미디어, 언론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알고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상호적 성적 행위의 기준"으로서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명시적으로 : 노출 있는 옷차림? 우리 집에 왔으니까? NO
말 또는 행동으로 명확하게!

의식이 있을 때 : 술, 약물에 취해 있거나 잠들었을 때? NO
성적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 그루밍? 교묘하게 속여서? NO
성적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 위력 때문에? 그 밖에 어쩔 수 없이? NO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항상 : 예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오늘도? NO
아까 합의했어도 중간에 멈추면 중단!

2018년 한국사회에 본격화된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다.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를 침해하는 죄로 정의했던 구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투운동은 성폭력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법·제도에 처벌의 공백 등 여러 미비점이 있음을 직면하게 했다. 상담소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2019년 3월 전국 298개 단체들과 함께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출범하는 등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강간죄 개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도 말했다. 어떤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호감이라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다⁵. 법률가, 법조인 등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⁶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형법상의 보호법익에 성폭력 정의규정이 부합하기 위해서 강간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3%,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죄로의 변경을 지지하는 의견은 60.9%였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명제가 법적, 사회문화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동의'라고 하고 무엇을 동의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성적 동의에 대한 어떤 기준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때인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적 동의를 실천함에 있어 '적극적 합의'라는 지향이자 준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 분석에서는 성적 동의에 대한 대중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 합의'를 구체화하고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⁵ 청와대 청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청원 시작 2019.11.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검색일 : 2021.11.29.)

⁶ 장다혜(2019). 강간죄의 재구조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11(1), 1-46.

**조사
및
분석
방법**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는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답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다.

조사A

조사A는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했으며 온라인기반 설문조사 업체를 통하여 ‘스킨십 또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자’ 10대~40대 6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수집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여성 300명, 남성 300명, 10대~40대 각 150명씩 균등하게 패널을 모집하였다. 응답자의 성적 지향, 장애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문 문항으로 질문했다. 조사A 응답자 특성표를 보면 대다수가 이성애자(93.5%)였으며 비장애인(99.2%)임을 확인할 수 있다.

7 조사A에서는 패널 구성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응답자들에게 성별정체성을 반영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성별을 다시 물었다. 그 결과 여성 50.0%(300), 남성 49.0%(294), 트랜스 여성 0.3%(2), 트랜스 남성 0.0%(0), 고민중 0.7%(4)로 수집되었다. 해당 응답을 조사A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데이터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선택지가 배타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트랜스 여성 응답자가 ‘여성’과 ‘트랜스 여성’을, 트랜스 남성 응답자가 ‘남성’과 ‘트랜스 남성’을 둘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데이터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14

성적
지향
및
성
관계
경
험
의
분
포
를
시
각
화
한
동
의

15

1
알
아
보
기

표 2 조사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⁷	비율(명)	계	
		(단위: % (명))	
스킨십 또는 성관계 경험 유무	경험 없음	- (0)	100.0 (600)
	스킨십을 한 경험만 있음	27.0(162)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음	73.0(438)	
성별	여성	50.0(300)	100.0 (600)
	남성	50.0(300)	
연령	10대	25.0(150)	100.0 (600)
	20대	25.0(150)	
	30대	25.0(150)	
	40대	25.0(150)	
성적 지향	이성애	93.5(561)	100.0 (600))
	동성애	1.8(11)	
	양성애	2.7(16)	
	무성애	0.2(1)	
	범성애	0.7(4)	
	고민 중	0.7(4)	
	기타	0.5(3)	
장애 여부	유	0.7(4)	100.0 (600)
	무	99.2(595)	
	기타	0.2(1)	

표 3 조사 응답자 특성 중 스킨십 및 성관계 경험

	스킨십을 한 경험만 있음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음	계
			(단위: % (명))
남성	22.3	77.7	100.0(300)
여성	31.7	68.3	100.0(300)
10대	80.0	20.0	100.0(150)
20대	19.3	80.7	100.0(150)
30대	4.0	96.0	100.0(150)
40대	4.7	95.3	100.0(150)

조사B

조사B는 2021년 6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했으며 상담소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이메일 소식지, 개별 전달을 통해 홍보하여 응답을 수집했다. 총 428명의 응답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응답에 참여했다. 동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하여 묻는 문항 자체는 조사A와 다르지 않았다. 상담소의 소통 채널 활용자 또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모집했기 때문에 조사A에 비해 다양하게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사A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 장애여부 등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조사A와 달리 50대와 60대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B 응답자 특성표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여성(81.7%)이고 비장애인(95.3%)이었으며 과반수(67.9%)가 20대와 30대였다. 응답자 중 이성애자는 55.1%로, 조사A가 93.5%였던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8 조사B에서도 “귀하의 성별을 말씀해주세요”라는 문항에서 성별정체성을 반영하여 성별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 81.5%(349) 남성 10.3%(44) 트랜스 여성 0.2%(0.2)(1) 트랜스 남성 0.9%(4) 고민중 4.0%(17) 기타 3.0%(13)으로 응답이 수집되었다. 조사A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응답 빈도를 ‘트랜스 여성’은 ‘여성’에, ‘트랜스 남성’은 ‘남성’에 포함하였고 성별 데이터를 여성, 남성, 고민중, 기타 응답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16

정기좌담회의 실시 현황

17

1 알아보기

표 4 조사B 응답자 특성(단위: 명)(%)

응답자 특성 ⁸		비율(명)	계
성별	여성	81.7(350)	100.0(428)
	남성	11.2(48)	
	고민 중	4.0(17)	
	기타	3.0(13)	
연령	10대	7.2(31)	100.0(428)
	20대	34.3(147)	
	30대	34.6(148)	
	40대	19.4(83)	
	50대	4.0(17)	
	60대 이상	0.5(2)	
성적 지향	이성애	55.1(236)	100.0(428)
	동성애	6.1(26)	
	양성애	18.2(78)	
	무성애	2.8(12)	
	범성애	6.3(27)	
	고민 중	7.9(34)	
	기타	3.5(15)	
장애여부	유	2.1(9)	100.0(428)
	무	95.3(408)	
	기타	2.6(11)	

조사B의 응답자들은 상담소에서 배포한 홍보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조사A 응답자들에 비해 페미니즘 및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담소 SNS 채널을 구독하고 있거나 이메일 소식지를 받는 구독자 및 회원이라면 지속적으로 상담소 활동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적극적 합의 및 강간죄 개정 운동에 대하여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B 응답자 그룹이 조사A 응답자 그룹에 비해 성적 동의에 대해 더 당연하게, 통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적 동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사A와 조사B의 응답자 모집 부분에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여부 등에 대해 물었으나 분석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몇 특성에 집중하기 위해 지역, 직업, 학력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 및 위치에 따라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지 못한 한계도 있다. ‘성적 동의’에 대하여 다양한 정체성과 사회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조사분석이 추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인터뷰

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하여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B 응답자 중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9인을 다음 표와 같이 모집했다. 인터뷰는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더 다양한 위치 및 정체성을 가진 참가자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작업은 추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표 5 심층인터뷰 참가자 특성

	성별	성적지향	연령대
사례 1	젠더퀴어	동성애	30대
사례 2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성애	10대
사례 3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무성애	30대
사례 4	시스젠더여성	이성애	20대
사례 5	시스젠더여성	이성애	20대
사례 6	시스젠더여성	양성애	30대
사례 7	시스젠더여성	이성애	50대
사례 8	시스젠더여성	이성애	30대
사례 9	고민중	바이로맨틱	20대

분석 진행 방식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조사A의 전체 응답, 조사B의 전체 응답, 조사A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응답, 조사A 여성 응답자의 연령별 응답, 조사A 남성 응답자의 연령별 응답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전반적인 응답 결과를 해석하면서 그룹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조사A 응답과 조사B 응답을 비교하였고, 조사A 응답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설문조사와 인터뷰 응답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 규범이 성적 동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며, 권력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적 관점에서 경험을 해석하고자 했다. 동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성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의란 무엇인지, 피상적인 확인으로서의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합의’ 과정을 통한 동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 다음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에서는 1번~5번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한 값은 다음과 같다.

번	문항 내용	조사A	조사B
1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49.3(296)	18.7(80)
2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96.7(580)	98.6(422)
3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	33.3(200)	9.8(42)
4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60.5(363)	32.5(139)
5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30.5(183)	6.8(29)
전체 응답		100.0(600)	100.0(428)

● 문항 내용을 보면, 2번 문항은 '동의'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기본 명제이다.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문항은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으며 바뀌어야 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항이다.

● 조사A의 응답을 보면 응답자 대다수인 96.7%는 2번 문항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했다. 기본적 명제에는 대다수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달라졌다. 1번 문항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4번 문항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인 60.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3번 문항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와 5번 문항 '여성의 노(NO)는

20

성적 동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21

1 알아보기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에도 각각 33.3%, 30.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여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 조사B의 응답을 보면, 대다수인 98.6%가 2번 문항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A 응답자에 비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았다. 상담소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만큼 강간죄 개정 운동 및 적극적 합의 캠페인을 사전에 접했을 수 있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하며, 상대의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의 거절의사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었을 수 있다.

● 그러나 조사B의 응답자들도 1번 문항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8.7%가, 4번 문항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2.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했다. 조사A와 비교했을 때 적지만, 조사A와 마찬가지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아졌다.

● 1번, 3번, 4번, 5번 문항이 실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성적 동의가 규범일 때와 응답자 스스로의 실천과 관련될 때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2	3	4	5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남성(300)	60.3(181)	94.0(282)	41.0(123)	60.3(181)	40.0(120)	
여성(300)	38.3(115)	99.3(298)	25.7(77)	60.7(182)	21.0(63)	
10대(150)	35.3(53)	96.0(144)	21.3(32)	50.7(76)	28.7(43)	
20대(150)	38.7(58)	97.3(146)	21.3(32)	61.3(92)	19.3(29)	
30대(150)	64.0(96)	94.0(141)	43.3(65)	66.7(100)	42.0(63)	
40대(150)	59.3(89)	99.3(149)	47.3(71)	63.3(95)	32.0(48)	
남성	10대(75)	50.7(38)	93.3(70)	30.7(23)	49.3(37)	36.0(27)
	20대(75)	48.0(36)	96.0(72)	34.7(26)	62.7(47)	30.7(23)
	30대(75)	74.7(56)	88.0(66)	52.0(39)	66.7(50)	52.0(39)
	40대(75)	68.0(51)	98.7(74)	46.7(35)	62.7(47)	41.3(31)
여성	10대(75)	20.0(15)	98.7(74)	12.0(9)	52.0(39)	21.3(16)
	20대(75)	29.3(22)	98.7(74)	8.0(6)	60.0(45)	8.0(6)
	30대(75)	53.3(40)	100.0(75)	34.7(26)	66.7(50)	32.0(24)
	40대(75)	50.7(38)	100.0(75)	48.0(36)	64.0(48)	22.7(17)

● 조사A 응답을 성별에 따라 보면 2번 문항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문장에 대하여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다수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 조사A의 1번, 3번, 4번, 5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성별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면, 1번 문항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에 응답자 중 남성이(60.3%) 여성(38.3%)보다, 30대(64%)와 40대(59.3%)가 10대(35.3%)와 20대(38.7%)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응답자 중 10대 여성(20%)이 위 문장에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3번 문항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에 응답자 중 남성(41%)이 여성(25.7%)보다, 30대(43.3%)와 40대(43.7%)가 10대와 20대(각 21.3%)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응답자 중 10대 여성(12%)과 20대 여성(8%)이 위 문장에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4번 문항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았을 때 30대 남성(66.7%), 30대 여성(66.7%)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5번 문항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남성(40%)이 여성(21%)보다 높았고, 30대(42%)에서 비교적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20대 여성(8%)이 위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 1번, 3번, 4번, 5번 문항은 맥락적이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4번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성적 경험이 성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30대와 40대가 10대와 20대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조사A 10대 응답자의 경우 스킨십 경험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30대와 40대의 경우 더 많은 성적 경험들을 떠올리며 조사에 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성적

동의' 인식 및 경험에 차이가 있으며, 행위자간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염두에 두며 '동의' 경험에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상담소가 제시한 적극적 합의 원칙에 대한 의견

※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적 동의'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에서는 6번~10번 문항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중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 응답을 합한 값은 다음과 같다.

표 8 적극적인 합의 원칙에 대한 의견 조사A와 조사B의 전체 응답 (단위: %) (원)

번	문항 내용	조사A	조사B
6	성적 동의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8.2(589)	98.6(422)
7	성적 동의는 명시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구해야 한다	86.8(521)	93.2(399)
8	성적 동의는 잠들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84.7(508)	92.5(396)
9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77.2(463)	90.9(389)
10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96.3(578)	98.6(422)
전체 응답		100.0(600)	100.0(428)

● 조사A와 조사B 모두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상담소가 제시한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에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9번 문항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에는 조사A의 경우 응답자의 77.2%가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원칙에 비해 낮았다. 앞선 1번 문항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

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에 조사A 응답자의 49.3%가 수긍하기도 했다.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 과정에서 철회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표 9 적극적인 합의 원칙에 대한 의견 조사A 성적별, 연령군, 연령군*성별, 연령군*성별*응답 (단위: %) (원)

	6	7	8	9	10
	성적 동의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적 동의는 명시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구해야 한다	성적 동의는 잠들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300)	98.7(296)	82.7(248)	82.0(246)	65.3(196)	94.0(282)
여성(300)	97.7(293)	91.0(273)	87.3(262)	89.0(267)	98.7(296)
10대(150)	95.3(143)	86.0(129)	82.0(123)	83.3(125)	97.3(146)
20대(150)	100.0(150)	88.7(133)	86.0(129)	77.3(116)	98.0(147)
30대(150)	98.7(148)	84.0(126)	82.7(124)	73.3(110)	97.3(146)
40대(150)	98.7(148)	88.7(133)	88.0(132)	74.7(112)	92.7(139)
남 10대(75)	97.3(73)	81.3(61)	82.7(62)	74.7(56)	97.3(73)
남 20대(75)	100.0(75)	86.7(65)	84.0(63)	66.7(50)	96.0(72)
남 30대(75)	98.7(74)	80.0(60)	81.3(61)	57.3(43)	94.7(71)
남 40대(75)	98.7(74)	82.7(62.7)	80.0(60)	62.7(47)	88.0(66)
여 10대(75)	93.3(70)	90.7(68)	81.3(61)	92.0(69)	97.3(73)
여 20대(75)	100.0(75)	90.7(68)	88.0(66)	88.0(66)	100.0(75)
여 30대(75)	98.7(74)	88.0(66)	84.0(63)	89.3(67)	100.0(75)
여 40대(75)	98.7(74)	94.7(71)	96.0(72)	86.7(65)	97.3(73)

● 조사A 응답에서 그룹간 응답 빈도 및 비율의 차이가 큰 9번 문항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를 이루어져야 한다’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 중 여성은 89%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지만 남성은 65.3%만 동의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았을 때 30대 남성은 57.3%만이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고 생각했다.

●● 지금까지 1~10번 문항을 살펴본 결과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명제가 일반적인 인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상담소가 제시한 ‘적극적 합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율로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조사A 60.5%, 조사B 32.5%), 추후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 및 운동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원칙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한편, 문항과 그룹에 따라 실제 성적 행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들에서는 ‘동의’에 대한 편견 및 통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칙만큼이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향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성적 의사소통 경험

※ 다음 내용은 스킨십 및 성관계 등 성적행위에서 성적 의사소통 경험을 확인한 결과이다. 설문조사에서는 11번~16번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한 값은 다음과 같다.

번	문항 내용	조사A	조사B
11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는다	86.0(516)	74.3(318)
12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47.8(287)	40.4(173)
13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	83.0(498)	72.9(312)
14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	46.0(276)	45.1(193)
15	나는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	13.8(83)	42.8(183)
16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87.7(526)	91.8(393)
전체 응답		100.0(600)	100.0(428)

표10 성적 의사소통 경험-조사A와 조사B의 전체응답 (단위: % (명))

● 응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1번 문항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는다’에 대해 두 조사 모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조사A(86%)가 조사B(74.3%)보다 높았다. 12번 문항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에 못미치게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조사A(47.8%)가 조사B(40.4%)보다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13번 문항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다수가 잘 표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A(83%)가 조사B(72.9%)보다 더 높았다. 14번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에 대해서는 조사A는 46%, 조사B는 45.1%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15번 문항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조사A의 경우 13.8%에 그친 것에 반해 조사B의 응답자의 42.8%는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컸다. 16번 문항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응답자 대다수가 중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B(91.8%)가 조사A(87.7%)보다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 11번, 13번 문항처럼 '충분하게 주고 받는다', '잘 표현한다'와 같은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문항에서 조사A 응답자가 조사B 응답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했다. 두 조사 응답자간 차이가 큰 문항은 15번 '옷차림이나 표정으로 성적 행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이다. 15번 문항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성적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피해자 책임론과 연결되는 문장이다. 본 조사분석의 뒷부분에서 조사B 응답자의 73.8%가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함께 볼 때, 조사B 응답자는 자신의 의사가 왜곡된 경험이 조사A 응답자들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 조사A와 조사B 모두 16번 문항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에 대다수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였다. 앞서 중간에 '여러번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적지 않았던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상대방의 중단 의사가 확인될 때 강압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행위 도중 반복적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표11 성적 의사소통 경험 조사A 성별 연령에 따른 응답(단위: %)(명)

	11	12	13	14	15	16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는다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	나는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남성(300)	85.3(256)	54.3(163)	77.3(232)	67.0(201)	11.0(33)	88.0(264)
여성(300)	86.7(260)	41.3(124)	88.7(266)	25.0(75)	16.7(50)	87.3(262)
10대(150)	78.0(117)	32.0(48)	82.0(123)	36.0(54)	11.3(17)	86.0(129)
20대(150)	90.7(136)	45.3(68)	86.0(129)	42.7(64)	12.7(19)	93.3(140)
30대(150)	90.0(135)	56.7(85)	82.7(124)	56.0(84)	17.3(26)	90.7(136)
40대(150)	85.3(128)	57.3(86)	81.3(122)	49.3(74)	14.0(21)	80.7(121)
남 10대(75)	74.7(56)	40.0(30)	77.3(58)	40.0(30)	9.3(7)	85.3(64)
남 20대(75)	89.3(67)	56.0(42)	80.0(60)	68.0(51)	13.3(10)	93.3(70)
남 30대(75)	92.0(69)	64.0(48)	73.3(55)	81.3(61)	12.0(9)	90.7(68)
남 40대(75)	85.3(64)	57.3(43)	78.7(59)	78.7(59)	9.3(7)	82.7(62)
여 10대(75)	81.3(61)	24.0(18)	86.7(65)	32.0(24)	13.3(10)	86.7(65)
여 20대(75)	92.0(69)	34.7(26)	92.0(69)	17.3(13)	12.0(9)	93.3(70)
여 30대(75)	88.0(66)	49.3(37)	92.0(69)	30.7(23)	22.7(17)	90.7(68)
여 40대(75)	85.3(64)	57.3(43)	84.0(63)	20.0(15)	18.7(14)	78.7(59)

● 조사A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11번 문항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10대는 78%가 그러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10대 남성(74.4%)이 10대 여성(81.3%)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 조사A 응답에서 13번 문항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는 문항을 성별에 따라 보았을 때 여성 응답자의 88.7%, 남성 응답자의 77.3%가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고 응답했다. 14번 문항 ‘나는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먼저 제안하는 편이다’를 성별에 따라 보면 응답자 중 남성의 67%가 먼저 제안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25%만이 먼저 제안한다고 하여 차이가 컸다. 연령에 따라 보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0대(36%) 응답자에게서 가장 낮았으며 30대(56%)에게서 가장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30대 남성 응답자의 81.3%가 스스로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적극적으로 여성은 소극적으로 역할하는 기존 섹슈얼리티 규범 하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제안과 수락 또는 거절 역시 성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구도는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먼저 동의를 구한다? 거의 제가 약간 답변을 해주는 느낌이라. 먼저 동의를 구한다? 이런 적은 없어요. 남자친구에게 뭔가 확실하게 제가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의사를 했을 때 거절을 하거나 거기에 응할 수 있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제가 먼저 막 동의를 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사례5

심층인터뷰 분석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성적 행위에 대한 제안과 수락 또는 거절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이 성적관계를 맺는 경우 여성 인터뷰 참가자들은 남성의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했다. 그렇지만 거절의사가 수용된 이후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불만 표현을 들었고 그로 인해 죄책감, 불편함 등의 감정이 생겨 수락하는 경험이 있다고도 말했다. 13번과 14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이러한 역동을 알기는 어려우나, 제안 및 거절/수락의 성별화된 구도와 역동이 이면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조사A 응답자 절반 가량은(47.8%) 12번 문항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54.3%)이 여성(41.3%)보다 느낌으로 파악하며 30대(56.7%)와 40대가(57.3%), 10대(32%)와 20대(45.3%)보다 느낌으로 파악한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30대 남성의 64%가 ‘상대방의 의사를 말보다 느낌으로 파악한다’ 문장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10대 여성은 24%가 느낌으로 파악한다고 하였다. 여성들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느낌으로 파악하다는 문장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높아졌다(20대 34.7%, 30대 49.3%, 40대 57.3%).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보다 말보다 느낌에 의존하여 의사소통한다고 응답했다.

동의 여부와 동의 확인 시점

※ 다음 내용은 스킨십 및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와 동의 확인 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 빈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의 여부

	조사A	조사B
묻지 않는다	1.8(11)	2.8(12)
상황에 따라 묻는다	60.2(361)	56.1(240)
항상 묻는다	38.0(228)	41.1(176)
계	100.0(600)	100.0(428)

● 두 조사 모두 ‘상황에 따라 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조사 60.2%, 조사B 56.1%). 조사B 응답자의 41.1%, 조사A 응답자의 38%가 ‘항상 묻는다’고 응답하여 조사B가 조금 더 높았다.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조사B 응답자가 조금 더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조사A 1.8%, 조사B 2.8%).

표 12 성적행위를 할 때 동의 여부(O17) 여부 조사와 조사B의 전체응답(단위: % (명))

표 13 성적행위를 할 때 동의 여부(O17) 조사와 성별 연령에 따른 응답 (단위: % (명))

		묻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묻는다	항상 묻는다	계
전체	남성	1.0(3)	65.0(195)	34.0(102)	100.0(300)
	여성	2.7(8)	55.3(166)	42.0(126)	100.0(300)
	10대	0.7(1)	52.0(78)	47.3(71)	100.0(150)
	20대	- (0)	62.0(93)	38.0(57)	100.0(150)
	30대	2.7(4)	65.3(98)	32.0(48)	100.0(150)
40대	4.0(6)	61.3(92)	34.7(52)	100.0(150)	
남성	10대	1.3(1)	56.0(41)	42.7(32)	100.0(75)
	20대	- (0)	68.0(51)	32.0(24)	100.0(75)
	30대	1.3(1)	69.3(52)	29.3(22)	100.0(75)
	40대	1.3(1)	66.7(50)	32.0(24)	100.0(75)
여성	10대	- (0)	48.0(36)	52.0(39)	100.0(75)
	20대	- (0)	56.0(42)	44.0(33)	100.0(75)
	30대	4.0(3)	61.3(46)	34.7(26)	100.0(75)
	40대	6.7(5)	56.0(42)	37.3(28)	100.0(75)

● 조사A 응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42%) 남성(34%)보다, 10대(47.3%)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았다. 응답자 중 10대 여성의 52%가 ‘항상 묻는다’고 응답하여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높았다.

동의 확인 시점

	조사A	조사B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묻는다.	20.7(122)	30.3(126)
상대가 불편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위일 때만 다시 묻는다.	51.8(305)	51.4(214)
그 이후에는 묻지 않는다.	17.7(104)	8.9(37)
모델, 집, 침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 않는다.	9.3(55)	6.0(25)
기타(직접 입력)	0.5(3)	3.4(14)
계	100.0(589)	100.0(416)

● 동의를 ‘항상 묻는다’ 또는 ‘상황에 따라 묻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언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지 물었다.

● 동의를 확인하는 시점은 주로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조사A 90.2%, 조사B 96.6%)였으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상대가 불편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위를 할 때만 다시 묻는다’에 응답했다(조사A 51.8%, 조사B 51.4%). 조사B 응답자가(30.3%) 조사A(20.7%)에 비해서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마다 동의 여부를 다시 묻는다’에 더 많이 응답하여, 조사B 응답자들이 성적 행위 과정에서 새롭거나 변화된 행위에 대해 상대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15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 시점(O18) 조사와 특별 연령에 따른 응답(단위: % (명))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모델, 집, 침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 않는다.	기타 (직접 입력)	계
		새로운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묻는다.	상대가 불편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위일 때만 다시 묻는다.	그 이후에는 묻지 않는다.			
전 체	남성	17.2 (51)	51.9 (154)	19.2 (57)	11.4 (34)	0.3 (1)	100.0 (297)
	여성	24.3 (71)	51.7 (151)	16.1 (47)	7.2 (21)	0.7 (2)	100.0 (292)
	10대	30.9 (46)	53.0 (79)	11.4 (17)	4.0 (6)	0.7 (1)	100.0 (149)
	20대	22.0 (33)	56.0 (84)	10.0 (15)	11.3 (17)	0.7 (1)	100.0 (150)
	30대	13.0 (19)	48.6 (71)	24.7 (36)	13.0 (19)	0.7 (1)	100.0 (146)
40대	16.7 (24)	49.3 (71)	25.0 (36)	9.0 (13)	- (0)	100.0 (144)	
남 성	10대	25.7 (19)	56.8 (42)	14.9 (11)	2.7 (2)	- (0)	100.0 (74)
	20대	21.3 (16)	52.0 (39)	9.3 (7)	16.0 (12)	1.3 (1)	100.0 (75)
	30대	6.8 (5)	50.0 (37)	25.7 (19)	17.6 (13)	- (0)	100.0 (74)
	40대	14.9 (11)	48.6 (36)	27.0 (20)	9.5 (7)	- (0)	100.0 (74)
	여 성	10대	36.0 (27)	49.3 (37)	8.0 (6)	5.3 (4)	1.3 (1)
20대	22.7 (17)	60.0 (45)	10.7 (8)	6.7 (5)	- (0)	100.0 (75)	
30대	19.4 (14)	47.2 (34)	23.6 (17)	8.3 (6)	1.4 (1)	100.0 (72)	
40대	18.6 (13)	50 (35)	22.9 (16)	8.6 (6)	- (0)	100.0 (70)	

● 조사A의 조사 결과를 더 상세히 보면, ‘처음 성적행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묻는다’에 여성 응답자의 24.3%, 남성 응답자의 17.2%가 응답하여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30.9%가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응답자 중 10대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고(36%) 30대 남성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6.8%). ‘처음 성적행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상대가 불편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위일 때만 다시 묻는다’에 20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56%),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20대 여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60%).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묻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은 30대(24.7%)와 40대(25%)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40대 남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27%) 10대 여성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8%). ‘모델, 집, 침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 않는다.’에 응답하여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가운데, 응답자 중 20대 남성(16%)과 30대 남성(17.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대한 조사A와 조사B 주관식 응답⁹ 중 선택지에 없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기, 뽀뽀같은 가벼운 스킨십은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분위기가 그 이상의 스킨십이 될 때 동의를 구하며 성관계 하기 직전 다시 동의를 구한다”,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매 순간 자주 묻지만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직접적인 성적 행위는 묻지만 스킨십 같은 경우 묻지 않는다”, “2~3일 전 동의”하고 “시작 전 동의”한다는 응답, “상대와 맥락에 따라”, “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있어, 수위,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성적 동의 여부 및 동의 확인 시점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A와 조사B 모두 성적행위를 할 때, 동의를 ‘항상 묻는다’ 또는 ‘상황에 따라 묻는다’는 응답이 98.8%, 97.8%로 대부분이었다. ‘상대가 불편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위일 때 동의 의사를 다시 묻는다’는 응답이 조사A(51.8%)와 조사B(51.4%) 모두 과반으로, 성적 행위 과정에서도 1번 이상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험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의 여부는 ‘성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 만큼이나 행위의 내용이나 수위, 상대방의 반응, 상황과 맥락, 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성적 동의를 할지 말지, 성적 동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개별 행위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어떠한 원칙도 마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적 동의를 개인들 간에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로 간주한다면 이미 성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구조와 젠더 및 섹슈얼리티 규범을 간과하게 되며,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적 소외, 배제, 차별, 폭력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라는 원칙과 지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9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여부 확인 시점 Q18 기타 응답

- (조사A) 안기, 뽀뽀같은 가벼운 스킨십은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분위기가 그 이상의 스킨십이 될 때 동의를 구하며 성관계 하기 직전 다시 동의를 구한다/때에 따라 다름/분위기에 따라 묻는다
- (조사B)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살피고 확인/매번상대가 완전히 또렷한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동의하는지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솔직히 물어보아야한다/순간순간 상대를 이해한다/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매순간 자주 묻지만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면 직접적인 성적행위는 묻지만 스킨십같은 경우 묻지 않는다/2-3일전 동의 시작전 동의/상대와 맥락에 따라 매번 다른 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이상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모든 상황마다 다르다/때에 따라서 시작 할 때만 묻기도 하고 새로운 행위를 할 때 묻기도 한다/성적 행위는 전적으로 파트너가 먼저 시작하지만 새로 시도하는 전희 등 과정에 관해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함

상대방 의사 확인 방식

※ 다음 내용은 성적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 확인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A	조사B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지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	35.8(211)	53.6(223)
상대방과 합의한 암호나 은어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20.5(121)	20.9(87)
'같이 시간을 보내자', '모텔에 가자' 등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	29.7(175)	14.9(62)
느낌으로 파악한다.	13.2(78)	7.0(29)
기타(직접 입력)	0.7(4)	3.6(15)
계	100.0(589)	100.0(416)

- '동의를 항상 묻는다' 또는 '상황에 따라 묻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상대방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 조사A 응답자의 35.8%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지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고 했으며, 20.5%는 '합의한 암호나 은어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고 하여 조사A 응답자의 56.3%는 분명한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조사B의 응답자들의 53.6%는 '하고 싶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였고, 20.9%는 '합의한 암호나 은어를 사용하여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조사B 응답자의 74.5%가 분명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조사B의 응답자(74.5%)가 조사A 응답자(56.3%)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조사A 응답자의 29.7%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 '모텔에 가자' 등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고 했으며, 13.2%는

'느낌으로 파악한다.'고 하여 조사A 응답자의 42.9%가 상대방의 의사를 암시적 또는 느낌으로 확인한다고 하였다. 조사B 응답자의 14.9%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 '모텔에 가자' 등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고 했으며, 7%는 '느낌으로 파악한다'고 하여 조사B 응답자의 21.9%는 상대방의 의사를 암시적 또는 느낌으로 확인한다고 하였다.

- 앞서 12번 문항에서는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인지 질문하여 질문하여 조사 A는 47.8%, 조사 B는 40.4%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했다. 그런데 19번 문항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방식에 대하여 다시 물었을 때 '느낌으로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A는 13.2%, 조사B는 7%로 낮아졌다. '느낌으로 파악'하는 관행이 있고 많은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응답했지만,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다른 방식들을 함께 선택지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렸을 때에는 다른 응답이 이루어졌다.

따르는 편”이라는 응답, “표정”을 살핀다는 응답,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있었다.

● 인터뷰에서도 성적 행위를 할 때 말이나 대화만이 아니라 느낌이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가자들도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때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관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다가 뽀뽀를 하던가 키스를 하던가 손을 잡던가 포옹을 하던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류의 제스처들? 그걸로 발전이 돼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서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약간 암묵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례5**

“일단 뭐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같이 있다가 “할까?” 이렇게 동의를 구하거나, 처음엔 이제 스킨십이 먼저 시작되거나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암묵적 동의가 있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해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사례7**

●● 느낌이나 상황이나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적극적 합의’에서 말하는 ‘명시적으로 말 또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철저적인 확인이 아니라 여러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뤄지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확한 확인 없이 오직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몸짓, 분위기, 상황, 관계 이전의 행위 맥락 등에 비추어서만 상대방의 의사를 해석한다면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파트너가 제 동의 없이 반 애들 앞에서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저는 그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반 애들 앞에서 제가 개한테 부끄러움을 줄까 봐요” **사례2**

심층인터뷰 사례2 참가자의 전 파트너는 연인사이임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참가자를 끌어안았다. 이러한 행동에는 연인사이라면 끌어안는 스킨십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인 사이라고 해도 명시적인 동의 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다면 원치 않는 성적 행위가 된다.

●●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기 쉬운데, 상대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느낌이나 맥락으로만 짐작한다면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통념에 따라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우리는 성적 실천에서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방식으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관행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 2019년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던 이른바 ‘감자탕 성폭력 사건’¹¹의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맥락과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¹¹ 이 사건의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과 감자탕과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했다. 감자탕 가게에서 피해자가 고기를 덜어준 점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된 점이 크게 공분을 사면서, ‘감자탕 성폭력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https://lawtalknews.co.kr/1424> (검색일 2021.12.29.)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간죄 무죄를 선고했다.¹² 재판부가 거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점 ② 피해자가 감자탕집에서 고기를 피고인의 그릇에 놓아주었던 점 ③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④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 정도까지 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스킨십을 한 점. 재판부가 거론한 이유 중 어떤 것에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해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행위, 여성의 친절한 행동,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으로 건네진 암시적 표현, 범죄가 일어난 장소, 스킨십이 있었던 맥락에 비추어 ‘동의를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성적 동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맥락이 사회문화적 맥락임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 사례4 인터뷰 참가자의 말처럼,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자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명시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도구가 말이기도 하니깐 계속해서 말로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사례4**

¹²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2. 선고 2019고합129 판결 참조. 해당 사건의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노2598 판결 참조.

‘동의’는 명확하게 제안하고 상대방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등 동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일이다. 언어로 묻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식이지만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의했다고 고려할 수 있다.

“둘 다 약간 손 같은 걸 잡을 때도 뭔가 서로 손을 탁 잡는다기보다는 손을 내밀어요. 잡을 거면 잡아, 약간 이런 느낌 (그 손을 내미는 게 잡을래? 잡아도 돼? 그런 표현인가봐요?) 네.” **사례5**

사례5 참가자는 “밥 먹을 때도 동의를 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우선시로 존중해”주는 연애 관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손을 내미는 행위는 다짜고짜 이루어지는 스킨십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행위이다. 일상에서도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는 관계의 맥락에서, 손잡는 행위를 하기 전에 한쪽이 손을 내미는 행위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강압적인 제스처라고도 할 수 없다.

●●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의 기본은 명시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상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밝힐 수 있는 평등한 관계인지,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 참여하는 성적 행위의 성격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동의’가 상대방에게 ‘yes’라는 말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되거나 행위 직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여겨진다면, 명시적으로 확인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성적 동의’가 어떤 조건과 관계 맥락에서,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험

※ 다음 내용은 성적행위시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이다.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성적행위시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O20)
- 조사A와 조사B의 전체응답 (단위: %, 명)

	조사A(600)	조사B(428)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 ¹³	17.2 (103)	21.7 (93)
지속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이다	49.3 (296)	55.1 (236)
그 전에 다른 스킨십을 했다	34.3 (206)	33.9 (145)
단 둘이 모텔 또는 상대의 집에 갔다	32.8 (197)	21.0 (90)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18.0 (108)	14.5 (62)
성적 대화를 주고 받았다	14.7 (88)	13.3 (57)
같이 술을 마셨다	14.2 (85)	9.6 (41)
클럽, 술집, 파티 등의 장소에서 만났다	2.8 (17)	1.4 (6)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다	0.8 (5)	1.4 (6)
상대방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0.7 (4)	(0)
기타(직접 입력)	3.5 (21)	7.7 (33)
계	188.3(1130)	179.7(769)

● 성적행위시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를 모두 골라달라고 했다¹⁴. 조사A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답변한 이유는

¹³ 성적행위시 동의여부(17번 문항)에서 '항상 묻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A가 38%, 조사B가 41.1%였다. 그런데 20번 문항에서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항상 묻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A는 17%, 조사B는 21.7%로 떨어졌다.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다른 구체적인 이유들과 함께 재확인했을 때 답변율이 떨어졌다. 원칙적·추상적 차원에서 응답할 때와 구체적·맥락적 차원에서 응답할 때의 답변이 달라지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¹⁴ 응답자가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를 선택하면 다음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46

적기
조기
함의를
시작
함독

47

1
알아
보기

'지속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서였다(49.3%). 두 번째는 '그 전에 다른 스킨십을 해서'(34.3%), 세 번째는 '단 둘이 모텔 또는 상대의 집에 갔다'(32.8%)였다.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보면, 조사B도 조사A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55.1%) 그 전에 다른 스킨십을 했다'(33.9%) '단 둘이 모텔 또는 상대의 집에 갔다'(2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조사A(17.2)에 비해 조사B(21.7)에게서 더 높았다.

● 이전에 성적 행동을 했던 맥락이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8페이지 표19를 보면 성적행위시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A 응답을 성별 및 연령별로 자세히 볼 수 있다. 조사A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선택하여 동의여부를 늘 확인하고 있다는 응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에게서 더 높았다(26%).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10대 남성(22.7%), 10대 여성(29.3%) 20대 여성(22.7%)이 다른 그룹에 비해 해당 응답을 더 많이 선택했다.

●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사유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는 남성 응답자의 51.7%, 여성 응답자의 47%가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응답자와 40대 응답자의 각 60%가 선택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30대 남성에게서 응답률이 높았다(65.3%) '그 전에 다른 스킨십을 했다'에도 남성(39%)이 여성(29.7%)보다 많이 응답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에게서 가장 높았다(38%). 성별과 연령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

※ 다음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 유무와 그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각 문항의 응답 빈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 여부

	조사A	조사B
그렇다	31(186)	73.8(316)
아니다	69(414)	26.2(112)
계	100.0(600)	100.0(428)

● 조사A의 경우 응답자 전체의 31%가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B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73.8%가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남성	20.0(60)	80.0(240)	100.0(300)
	여성	42.0(126)	58.0(174)	100.0(300)
	10대	18.0(27)	82.0(123)	100.0(150)
	20대	33.3(50)	66.7(100)	100.0(150)
	30대	37.3(56)	62.7(94)	100.0(150)
	40대	35.3(53)	64.7(97)	100.0(150)
남성	10대	12.0(9)	88.0(66)	100.0(75)
	20대	21.3(16)	78.7(59)	100.0(75)
	30대	21.3(16)	78.7(59)	100.0(75)
	40대	25.3(19)	74.7(56)	100.0(75)
여성	10대	24.0(18)	76.0(57)	100.0(75)
	20대	45.3(34)	54.7(41)	100.0(75)
	30대	53.3(40)	46.7(35)	100.0(75)
	40대	45.3(34)	54.7(41)	100.0(75)

표20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 유무(Q21)
- 조사A와 조사B의 전체 응답 (단위: % (명))

표21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 유무(Q21)
- 조사A 성별 연령에 따른 응답 (단위: % (명))

● 조사A 응답을 성별에 따라 보았을 때 남성 응답자는 20%(60명)가, 여성 응답자는 42%(126명)가 응답하여 여성이 2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에 그쳐 타 연령대 대비 가장 적었다. 10대 여성(24%)과 10대 남성(12%)에게서도 해당 문항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이유

	조사A(186)	조사B(316)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니까	58.1(108)	49.4(156)
분위기를 망칠까봐	48.9(91)	29.7(94)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	34.9(65)	32.6(103)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27.4(51)	39.2(124)
거절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몰라서	17.2(32)	18.0(57)
거절하면 상대방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5.9(11)	16.8(53)
불이익을 당할까봐	4.8(9)	6.3(20)
기타(직접 입력)	2.7(5)	7.9(25)
계	200.0(372)	200.0(632)

표22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이유 Q22
- 조사A와 조사B 전체 응답 (단위: % (명))

●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적이 있다고 한 조사A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니까’(58.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망칠까봐’(48.9%),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34.9%)가 뒤를 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적이 있다’고 한 조사B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니까’(49.4%)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39.2%),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32.6%)가 뒤를 이었다.

●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되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	분위기를 망칠까봐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니까	상대방 과의 관계가 안 좋아 질까봐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거절하면 상대방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기타 (직접 입력)	계
전 체	남성 (60)	23.3 (14)	61.7 (37)	70.0 (42)	28.3 (17)	13.3 (8)	1.7 (1)	1.7 (1)	- (0)	200.0 (120)
	여성 (126)	40.5 (51)	42.9 (54)	52.4 (66)	27.0 (34)	19.0 (24)	7.9 (10)	6.3 (8)	4.0 (5)	200.0 (252)
	10대 (27)	44.4 (12)	48.1 (13)	37.0 (10)	18.5 (5)	33.3 (9)	11.1 (3)	3.7 (1)	3.7 (1)	200.0 (54)
	20대 (50)	40.0 (20)	40.0 (20)	60.0 (30)	26.0 (13)	20.0 (10)	6.0 (3)	6.0 (3)	2.0 (1)	200.0 (100)
	30대 (56)	28.6 (16)	51.8 (29)	67.9 (38)	25.0 (14)	14.3 (8)	3.6 (2)	5.4 (3)	3.6 (2)	200.0 (112)
	40대 (53)	32.1 (17)	54.7 (29)	56.6 (30)	35.8 (19)	9.4 (5)	5.7 (3)	3.8 (2)	1.9 (1)	200.0 (106)
남 성	10대 (9)	33.3 (3)	66.7 (6)	55.6 (5)	22.2 (2)	22.2 (2)	- (0)	- (0)	- (0)	200.0 (18)
	20대 (16)	25.0 (4)	62.5 (10)	75.0 (12)	31.3 (5)	6.3 (1)	- (0)	- (0)	- (0)	200.0 (32)
	30대 (16)	31.3 (5)	56.3 (9)	68.8 (11)	12.5 (2)	18.8 (3)	6.3 (1)	6.3 (1)	- (0)	200.0 (32)
	40대 (19)	10.5 (2)	63.2 (12)	73.7 (14)	42.1 (8)	10.5 (2)	- (0)	- (0)	- (0)	200.0 (38)
여 성	10대 (18)	50.0 (9)	38.9 (7)	27.8 (5)	16.7 (3)	38.9 (7)	16.7 (3)	5.6 (1)	5.6 (1)	200.0 (36)
	20대 (34)	47.1 (16)	29.4 (10)	52.9 (18)	23.5 (8)	26.5 (9)	8.8 (3)	8.8 (3)	2.9 (1)	200.0 (68)
	30대 (40)	27.5 (11)	50.0 (20)	67.5 (27)	30.0 (12)	12.5 (5)	2.5 (1)	5.0 (2)	5.0 (2)	200.0 (80)
	40대 (34)	44.1 (15)	50 (17)	47.1 (16)	32.4 (11)	8.8 (3)	8.8 (3)	5.9 (2)	2.9 (1)	200.0 (68)

● 조사A 응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이 하고 싶어하니까’에 남성 응답자의 70%, 여성 응답자의 66%가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라는 이유에는 남성 응답자의 23.3%가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40.5%가 응답하여 여성이 해당 이유를 더 많이 선택했다.

● 응답 수 자체는 적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답변도 있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까봐’에는 남성 응답자의 1.7%, 여성 응답자의 7.9%가 응답하여 여성이 약 5배 더 많았다. ‘불이익을 당할까봐’에는 남성 응답자의 1.7%, 여성 응답자의 6.3%가 응답하여 여성이 약 4배 더 많았다. 선택지에 없는 기타 주관식 작성자는 모두 여성 응답자였는데 ‘안해주면 안간다고 함’, ‘남편이 원해서’, ‘헤어질까봐’, ‘임신준비중이라서’, ‘술에 취해서’를 그 이유로 적었다.

● 조사B의 기타응답을 살펴보면 더 많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행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해서’, ‘술에 취해 의사 불분명한 상태’,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 이후 지속적으로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게 싫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웃팅을 당할까봐’, ‘협박해서’, ‘남성이라면 상대방의 성적요구를 들어줘야한다는 문화 때문에’, ‘대화하기 귀찮아서’, ‘기습 혹은 제압 당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폭력적인 상황에서 강제당해서 무서워서’ 등이 있었다. 인지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연애 및 섹슈얼리티 규범 때문에 등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기타응답

(조사A) 안해주면 안간다고 함 / 남편이 원해서 / 헤어질까봐 / 임신준비중이라서 / 술에 취해서

(조사B) 가해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음. / 내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을 때 정말 거절하고 싶었지만 가해자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내 온전한 느낌과 감정은 계속 무시당하겠지 생각함 / 의무방어전 / 동의 여부를 답할 겨를도 없이 키스를 당한적이 있음 / 이게 무슨일이지 상황파악이 안됐다.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섹스어필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없어서 한참 나중에야 손잡거나 갑자기 안는게 섹스어필이었다는걸 알았다. 세상에. / 정확히는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밀실에서 갇혀서 힘으로 제압당했습니다. / 이게 불쾌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나중에야 인지 가능해서 / 폭력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동의 / 이미 안 물어보고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를 나에게 시도하고 있어서 말할 타이밍이 없었음 / 관계에 안 좋을거 같아서. / 상대방이 날 버릴까봐 / 술에 취해 의사 불분명한 상태 /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 거절 이후 지속적으로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되는게 싫어서 / 아웃팅을 당할까 봐 / 생각해보지 않아서 마음 결정을 못함 / 받은 만큼 주는 게 사랑이라서 생각해서 원하는 바를 맞춰준다고 여겼다./하고싶지않았으나 상대방의 스킨십으로 하고싶어졌기때문 / 말을 하면 안될 상황이였어서 / 마음을 생각하기도 전에 상황이 흘러가서 / 술에 취해서 / 남자라면 당연하게 파트너의 성적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문화 때문에 / 귀찮지만 적당히 할만해서 - 매번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질문들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협박해서 / 대화하기 귀찮아서 / 폭력적인 상황에서 강제당해서 무서워서

- 심층 인터뷰 참가자들도 당시에는 동의 의사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동의라고 볼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다.

“취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방이 (...)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자기가 사정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었고 저한테도 성기 사진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이걸 보내주지 않으면 아웃팅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조금. 그리고 저는 아웃팅 당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하지 못했는데 면밀히 말해서 이걸 동의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례2**

“너는 나한테 표현 안 하나 나는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가 오가던 중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요, 그 때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한테 계속 애정표현을 하라는 것 때문에 짜증도 났었고 싫었는데, 더 이상 신체적으로 끌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원하니까 어느정도 배려처럼 생각을 하고 관계를 했어요” **사례4**

- 사례2 참가자는 채팅방에서 만난 방장이 아웃팅을 할 수 있다며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협박하여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요구한 성적 행위를 수락했다. 사례2 참가자는 이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유주성(2019)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 또는 방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를 ‘하자 있는 의사’¹⁶⁾, 즉 동의했다고 인정 할 수 없는 의사라고 본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위력, 강요, 무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표현된 수락은 원칙적으로 ‘동의’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¹⁶⁾ 유주성(2019).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 31(1), 111-132.

●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락했던 사례4 참가자는 당시 경험을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해석했다. ‘남자친구’가 성적행위를 갈구하는 상황에서 사례4 참가자는 “상대방이 원하니까 어느 정도 배려처럼 생각을 하고” 성관계에 응했다고 말한다.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그냥 등을 돌린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 상대방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위 등을 “자기 주도적으로” 했으며 사례4 참가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경험 당시에도 내가 억지로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례4 참가자는 주변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경험을 “성적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재해석하게 되었다. 그러한 해석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 동의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을 ‘내가 피해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보니까 내가 동의를 한 거지 그치, 내가 의사표현을 더 잘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곱씹어보면 볼수록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한다, 표현해줘야 하고 응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잘못된 거였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례4**

● 사례4 참가자에게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다. 심지어 수일이 지난 후에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 당시 사례4 참가자가 원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것도 상대방이다.

●● 하지만 사례4 참가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고, 거절 표시를 소극적으로 했고, 자신이 수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력이라고 해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되는 원치 않는 성적경험이 ‘동의한 성적 행위’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성적 경험은 성폭력인가? 애초에 수락한 내 책임인걸까? 원래 스킨십이란, 성관계란 그런 것일까?’ 원치 않았지만 이루어졌던 성적 경험에 대한 의문들은 타당하다. 어쩔 수 없이 수락했던 성적 경험에 대해 ‘적극적인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하면 그 경험이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확해진다.

●●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것은 동의가 아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심어 압박하는 상황, 한쪽의 행위자가 술을 마셔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인 상황,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지 정보가 없거나 성적 경험에 대한 차이가 심하게 나서 한쪽에만 주도권이 있는 상황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무시, 제한, 방해, 제압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일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 드러나야 한다. 동의는 개인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했는지 의사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단순히 파트너 운에 달려있거나 성관계가 원래 참거나 배려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성적 실천과 관계에 대한 규범을 토대로 적극적 합의 과정을 통한

동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의 성적 경험과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적극적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지금까지 성적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력관계나 성규범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수락은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적극적인 합의를 통한 성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다. 지금부터는 '적극적 합의'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는 조사B 응답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9명을 모집하여 진행했으며 질문지는 표와 같다. 아래의 질문지는 인터뷰 맥락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사회문화적 요건이나 관계의 특성 등이 적극적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는 못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특성 및 위치, 고용 상태나 경제적 여건, 거주 지역, 패싱 여부, 낙인이나 고정관념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뷰 질문지

1. 어떤 관계에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고 계시나요?
2. 위의 관계에서 성적 동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매과정마다? 성적행위 장소 도구 등에 대해서 다 이야기 나누는지?)
3.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일상에서도 자주 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4. 상대방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6. 이밖의 관계에서 성적 동이가 잘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7. 성적 동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과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8. 성적 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9. 성적 동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경험
-- 내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경험
10. 내가/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11.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12. 성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하시나요? (과거/현재)
13. 성적 행위를 할 때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14. 이상적인 성적 동의는 언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5. 오늘 인터뷰에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파트너를 동등한 인간으로

“내가 원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부정을 안 했지?’ ‘내가 왜 도망을 간다든지 하지 않았지?’ ‘내가 어느 정도 수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다 보면 어떤 권력이 나와요. 위계 안에서 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업계에서는요. 연인관계라고 해도 동등하지 않았거나 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것에 의해서 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위험한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례9**

사례9 참가자는 거절할 수 없었거나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성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권력관계가 그 원인으로 나왔다고 말한다. ‘평등한 관계’는 적극적 합의의 조건이다. 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 ‘적극적 합의’는 일상의 평등으로부터

심층인터뷰 참가자들은 성적 행위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과 일상의 여러 선택들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연속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자잘한 일들에서부터 동의 또는 거절을 못하는 관계’라면 폭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성관계에서 동의하는 거랑, 어디 뭐 밥 먹으러 갈 때 동의하는 거랑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것도 어떤 배타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 성관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어디 가서 밥 먹을 것인가 이런 거? 같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사례6**

“폐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이나 피해 입었을 때 피해를 구조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잘한 것에서부터 내가 승낙과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훨씬 더 피해 양상이 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적 부분은 그런 부분의 극대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젠더권력이 헤테로 관계에서만 있는 거 아니고 동성 관계에서도 조금 더 관계를 주도권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장이 커지기 마련이니까. 관계의 평등적 부분에서 동의 부분을 이야기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3**

성적 행위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 간에 수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선택과 합의 중에서 “적나라하게 밀도 높은 공동의 액티비티 중 하나(사례6)”이다.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거절할 수 있는지, 일상에서도 선택이 존중되는지 여부가 성적 동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균열로 나아가기

한 참가자는 파트너와 성적 동의가 잘 이루어지는 이유를 상대방이 자신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탈지 걸어 갈지’ 등 사소한 일상에서도 여러 선택지가 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파트너가 존중하며 여성으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감각은 과거 파트너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료해진다.

“한국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연상이든 연하든 “이러면 안 돼”라거나, 저한테는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되게 내가 남자였으면 이런 취급 안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예전 남자친구들은) 그런 여자에 대한 존중이

없었지만, 부족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너무나 충분히 저를, 제 의사를, 모든 것을 다 존중해주고, 그렇다고 자기 욕구를 희생하거나 하는 건 아니면서 저의 의사를 너무나 존중해줘서 그 점이 제일 너무 좋아요.” **사례8**

사례8 참가자는 다른 문화권 남성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여자도 인간으로, 2등 시민이 아니로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관계에서도 존중받는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사례7 참가자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태도로 변해가고 외도로 인해 상호 신뢰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남편이 성관계 직후에 ‘수고했다’고 했을 때 관계의 단절을 불러올 만큼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 한다. “대등한 관계라든가 정말 서로 간에 수고해서 그 마음을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가 굉장히 ‘동등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강했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편은 ‘내가 가장인데’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안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랑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율도 안 되고 좁혀지지 않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너 잘났다고 하지” 이런 표현. 음.. 아 이게 남자와 여자로 두는 부분인가? 자기가 가장으로 있을 때랑 친구로 있을 때랑 너무 다르구나.” **사례7**

사례4 참가자는 적극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성별 권력 관계가 깨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지위나 권력관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많이 깨져야 한다고 느껴요 ... 권력관계를 인식을 하면서도 상대를 어떤 하나의 주체로 보고, 계속 눈치보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 눈치까진 바라지도 않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4**

친밀한 관계 및 성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은 성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성적 경험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성적 관계에도 한쪽의 권력이 더 많을 수 있다.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적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서로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텔비를 더치하지 않고 누가 하나가 다 냈다고 하더라도” **사례1**

행위자 간에 경제적 상황 등 권력의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텔비를 더치하지 않고 누가 하나가 다 냈다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서로가 동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례1 참가자의 말은 관계에서의 평등은 실천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성적 실천의 순간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권력을 분배하며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동의를 안 구하는 역할

이분법적 젠더 규범으로 각분화되어 있는 연애, 결혼 등 성적 관계에서 주도하는 역할은 남성성으로, 수용하는 역할은 여성성으로 여겨진다. 다음 사례처럼 남성성은 강한 성욕과 연관되며, 이를 해소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섹슈얼리티 규범 중 하나이다. 사례7 참가자는 주변에 널리 퍼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식욕보다 성욕이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못 견뎌하는데 남자들이 되게 그리고 성욕이 그만큼, 거의 퍼센트로 따진다면 삶에 있어서 50대 50, 식욕 반 성욕 반. 또 성욕이 더 강할 때도 있고. 그렇다 라고 후반부에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욕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외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남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고.” **사례7**

인터뷰 참가자들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특정한 이미지가 있으며, 여성적인 역할은 수용적 역할이라는 규범이 있다고 말한다.

“여성의 성적 역할에 대한 이미지 자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자가 즐기는 듯이 해줘야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이 관계가 즐겁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용인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4**

“저는 상대의 성별 관계 없이 만나지만, 헤테로 관계에서는 제가 여성적인, 수용적 포지션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례3**

위 이야기처럼 성역할 수행은 성적 동의와도 연결된다. 여성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하고 ‘받아줘야 한다’고 노력하게 된다. 사례6 참가자는 성적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박력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그것이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 그래서 제가 더 여성성이 없어서 조금 상위를 점하게 되면, 제가 왠지 리드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껴요. 상대도 약간 암시하는 것 같고, 이것도 부적절한 것 같죠. 어쨌든 예를 들면 제일 강렬하게 남았던 쪽팔린 흑역사가, 엘리베이터 없는 6층에 살 때가 있었는데 파트너와 함께 동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장을 보면 저한테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근력을 기대할 만한 피지컬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 애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또 자연스럽게 그런 근력과 박력과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정해진 역할 같은 것들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적이 많았어요. 동의를 안 구하는 역할에 몰입한 적이 있어요.” **사례6**

사례6 참가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성역할 규범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적극적 합의는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성역할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욕망에 솔직해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진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불편한 옷을 서로가 입고 가는 것에 어떤 한계 지점이 왔고, 그때 그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나는 상대가 리드해주는 게 좋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게 편안하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내가 리드하고 싶고, 어떨 때는 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네 앞에서 조금 더 여성성을 드러내고 싶다, 좀 더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확 동시에 감사하게도 털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서로. 적응 안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게 조절, 조율이 되고 나니까.” **사례6**

합의의 범주는 바닥도 천장도 없는 근본 없는 대화로부터

‘적극적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행위부터 동의를 구해야 할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적 행위 수위나 내용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기도 했으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손잡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참가자들도 있었고,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호라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반면 ‘손잡는 것’부터 동의가 필요한 스킨십이라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원하는 상태에서 하는 스킨십이 동의하에 하는 스킨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워낙에 누군가 몸을 만지는 게 예민하고 좀 싫어하기도 하는 편이라서. 손을 잡는 것부터가 저는 스킨십인 것 같아요.” **사례3**

또 다른 참가자는 스킨십이 몸과 몸의 상호작용인 만큼 어떤 온도와 감각을 좋아하는지 등 합의엔 범주가 없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스킨십이나 성관계에도 단계가 있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등, 성적 행위 과정은 각분화되어 있다. 성기 삽입 중심으로 짜여있는 스킨십과 성관계 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장소, 도구, 분위기 또는 성적 실천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피임, 건강, 위생, 신체적 상태 및 조건, 안전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어떨까? 상대방과 하고 싶은 행위가 무엇인지 서로가 원하는 감각과 욕망과 상태를 펼쳐놓고 맞춰간다면 성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지평이 열릴지도 모른다.

“저는 합의의 범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합의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스킨십을 재정의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상상력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스킨십 할 것인가? 너에게 스킨십은 뭐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가 합의하면 떠오르는 이상적인 대화는, “너는 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에 어떤 걸 좋아하나, 온도 중에는 어떤 걸 좋아하나, 내 몸과 네 몸이 만나 그런 것들을 서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바닥없는, 근본 없는 대화들 있잖아요.” **사례6**

익숙하고 능숙하다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는 의사소통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상대방과 어떤 동의 과정을 거쳤을 때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느끼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말로 묻는 것, 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조서A - 상대방과 어떤 동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귀하의 의견이 존중되었다고 느끼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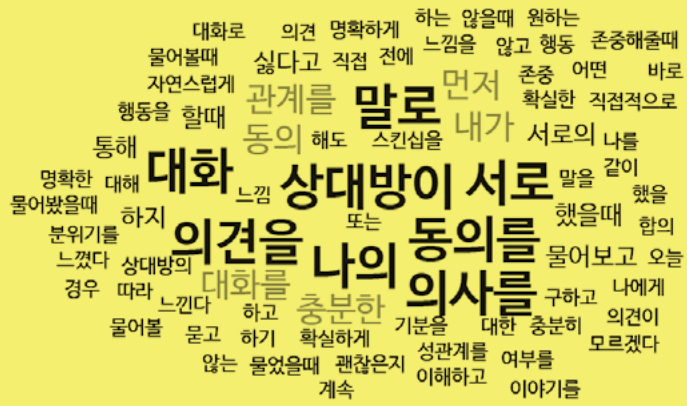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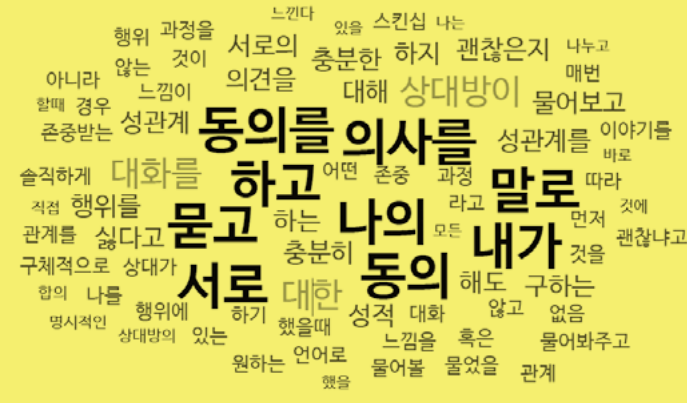


그림 2 조서B - 상대방과 어떤 동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귀하의 의견이 존중되었다고 느끼는지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다. 동의를 구하는 의사소통이 성적 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가 시작했을 때와 달리 행위 도중에도 바뀔 수 있고 그에 대해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도구가 말이기도 하니 계속해서 말로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사례4**

“저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이 느끼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질문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구요”

사례3

사례1 참가자는 성적 동의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0”) 일어나지 않는 것(“1”)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사소하거나 중대하거나 익숙하거나 낯선 모든 연속적인 성적 행위 과정(“0에서 100 사이에”)을 만들어가는 합의 과정이라고도 말한다.

“성적 동의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해줬으면 하는 걸 해주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덜하거나 더해달라고 조율하는 것도 훨씬 더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행위가 0, 1이 아니라 사실상 0에서 100사이에 무언가 일어나는 거” **사례1**

더 많이 질문하고 경청하고 성찰하고 반영할 수록 어느 한쪽의 욕망만 반영되는 불균형한 성적 실천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 초반 혹은 성적 실천에 대해 “서투르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생략되는 것들” 없이 “건강한 성적 동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그때는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도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호기심도 많고 그랬지만, 우리가 관계를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분위기가 좋을까, 언제 할까?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우리가 ‘서투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익숙하고 능숙한 척 하면서 생략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생각되고. 그 때는 ‘모텔에 가면 나는 불편하다’ 라든지 ‘나에게는 이런 성적 환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곧바로 멈춰서 전혀 섭섭한 감정 표현이 느껴지지 않은 채로 다른 일을 이어갔었고. 그때 경험이 제일 건강한 성적 동의에 가깝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례4**

거절을 거절로!

‘적극적, 의식적, 자발적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거절의사를 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동등한 관계란 싫다고 말하면 그냥 그게 싫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고 서로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다음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동등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행위가 양쪽에서 상호 같이 일어나는 것. 두 명 다 그럴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거부를 표시하면 거부가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동의를 해도 동의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으로요.” **사례2**

그러나 앞서서 대중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된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파트너의 조르기, 서운함 표현, 화내기, 설득하기, 빈정거리기, 비판하기 등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수락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그전에 만났던 한국인 남자친구들은 아 진짜 막 하기 싫어도 계속 조르고 승낙을 받을 때까지 조르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너무. 제가 막 피곤하고 자고 싶고 그래도 계속 모텔 가자고 조르거나 아니면 계속 기다렸다가 제가 동의할 때까지 계속 압박을 주고 그게 너무 싫고...” **사례8**

사례8 참가자는 “한번 거부했는데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끝에 마지막으로 동의 해주는” 경험을 성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인이 되고나서 겪으면서 “초반의 섹슈얼리티는 되게 소극적인 것이었고 방어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다른 참가자들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뭘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성하고 관련 없는 거.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 이리지 않았던 것조차 불쾌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부의사나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밥을 차려줬는데도 “밥만 먹으면 뭐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아내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웃음) 전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들밖에 안 보이냐” 뭘 이런 것들. ‘갑자기 왜 애들밖에 안 보이냐고 이야기를 하지?’였는데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냐’ 이런 뉘앙스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사례7**

“제가 극도로 거부를 하면 ‘왜 거부를 하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규정 내린다든지. 아니면 싫증난 표정들. 의자를 집어던진다든지, 싫증나고 지치고 질린다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때는 내가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었어도 그 다음에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다보면 당연하면 안 되지만 당연한 얘기처럼 성관계를 참잖아요. 그 상황을 참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준다든가.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와중에
추행이라고 느낀 적도 있었고.” **사례9**

“근데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관계를 원해서. 물론 제 마음
없이 한 적은 없지만 뭔가 괜히 내가 안 해줘서 죄책감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
뭐 오히려 남자친구의 성욕이 많이 켜어서 저는 적은 편이라
제가 하고 싶을 때는 남자친구가 무조건 같이 성욕이 있었던,
같이 있었던 시기고 제가 없을 땐 남자친구가 성욕이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 남자친구의 말로는 ”너는 너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사실상 맞는 건데 안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례5**

“(상대방이) 제안을 했고 제가 이제 거절을 한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성적 능력과 결부시키는. ‘너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그래?’ 뭐 이런. 그렇게 되면 저도 더 이상 편하게
동의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례6**

‘적극적 합의’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은 노(No)를
예스(Yes)로 바꾸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이
거절로 한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적 행위에 대한 거절을
하는 것이 상대방 자체에 대한 거절로 여겨지거나 성적 행위를
조르는 것이 애정표현으로 여겨지는 관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소수자, 감정의 시그널 감지하기

설문조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이유로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조사A는 34.9%, 조사B는 32.6%에
달했다. 조사A 응답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23.3%)보다
여성(40.5%)에게서 더욱 응답이 높았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장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조차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사례3 참가자는 무성애자로 정체화하면서 성적
행위를 할 때 더 잘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가 다소 자기주장이 분명해진 사람이 된 것은 맞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좀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상대방이 나의 몸의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싫을 때는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어떤 포인트이기도
했어서요.” **사례3**

성적 욕망과 실천이 유성애 중심으로 규범화된 사회에서
무성애자는 자신이 원하는 성적 관계가 무엇인지 언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성소수자의 성적 실천이 비가시화 되는
이성애 중심적 사회에서, 청소년과 장애인의 성적 욕망이 통제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터부시 되는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렵거나 알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사례3 참가자는 무성애자로 정체화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시그널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해
소수자들이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신경썼기 때문에 제 감정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느끼는 감정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잘 돌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도 되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그널을 잘 감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례3**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등 자기 합의점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시행착오를 같이 겪을 수 있는 관계 또한 필요하다.

“함께하는 시행착오도 그렇고, 자기 혼자 하는 시행착오도 그렇고, 그런 게 없으면 자기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냥 경험과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적어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걸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여야 최소한 그런 걸 기준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 합의까지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6**

적극적 합의가 당연해지려면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적극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 외에 어떠한 사회적 환경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주변인, 소속집단, 미디어, SNS, 책 등을 통해 성적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참가자들이 동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적 관계에서 동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았다.

● ‘동의’가 당연한 소속 집단 안의 분위기

‘성적 동의’ 운동이 먼저 일어났던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례1

참가자는 캠퍼스 안에서 동의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학생 자치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접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성적 동의에 대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의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타학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집단에 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성적 동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할 때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 접해온 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꽤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례1**

● 성폭력 말하기에 대한 공감과 지지

미투운동은 성폭력 말하기에 대한 공감과 지지 운동이자 #나도말한다는 이어말하기였다. 사례9 참가자는 소속된 업계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을 통해 당시에는 정의하지 못했던 성적 경험을 성폭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면서 원치 않은 성관계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해석한 다른 인터뷰 참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추행 당한 건가? 성폭력 당한 건가?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죠. 성폭력이었다고 성추행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당사자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판단이 잘 안서니까. 그럴 때 ‘성적 동의에 대한 거 분명하게 하자’ oo계쪽에서 운동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근데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물랐으니까, 내가 당하고도 몰랐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물음표투성이었거든요” **사례9**

사례5 참가자는 학교 내에 성차별·성폭력에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덕에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으로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저희 학교는 학교 교수님에 의해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로 그걸 분노를 잘 하는 편이라 바로 그 교수님이
징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되게
조심하시는 편이고. 그런데 제 친구들, 다른 공학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자기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자기가 그렇게 가해자인 마냥 욕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너가 싸게 굴었겠지 막
이런 거, 이런 것들. 너가 꽃뱀일 수 있겠지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여대에서는 그렇게 뭔가
의견에 반대하는 남자들도 없었고 단체로 서로의 약자적인
것에 공감을 잘했기 때문에 서로 좀 더 그렇게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사례5**

● 성폭력 판단을 동의 여부로

사례3 참가자는 언제 성적 동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성추행 피해 상담을 받았던 때를 언급하며 해당 경험을
통해 ‘싫은 것은 싫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제가 20대 중반에 성추행 피해 있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상담 선생님이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싫은 순간에는
신고하거나 싫다고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되게 유치원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20살 중반이 되어서야 상담하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3**

한편 사례2 참가자는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는 동의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협박이
동반된 상대의 제안을 수락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겨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동의가 어떤 게 동의고 어떤 게
동의를 아닌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점. 그 다음에 성폭력
교육에서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동의를 하지 말라는 내용 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위계가 있어서 동의를 했을 때 이게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고...”

사례2

청소년으로서 학교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오히려 SNS를 통해 성적 동의, 피임, 성교육,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점도
지적했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피해자 권리 구제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접근성의 차원에서 일단 만약 트위터를 한다면 이런 정보를
얻기는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유용한
지식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트위터를 하지
않을 때는 이런 걸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편이었고 아무래도
학교 성교육에서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되게 보수적인
편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oo 단체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성폭력 당시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사례2**

● **다양한 성적 정체성과 실천의 가시화**

성소수자 정체성이 가시화되면서 스스로의 성적 동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원하지 않는 동의 방식으로 관계 맺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무성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어 내 애긴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책자나 블로그 연재
하는 거에서 무성애자 스펙트럼이 조금 더 가시화되었던
시점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맞는데, 라고 생각하며 정체화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었고 제가 원하지 않는 동의의 방식으로 관계 맺어진 걸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정체화한 것이거든요. 접근하게 된
게기 자체가 정체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례3**

●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제거**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동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적 실천과 관행이 있는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은 성적 실천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한다. 사례1 참가자는 미투운동을 지나며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루어지던 관행을 성추행이라고 명명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등 커뮤니티 안에서도 성적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게이 커뮤니티의 문화, 코드, 뉘앙스를
펼쳐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장벽처럼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단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남성 간 손잡는 것 자체마저도 터부시되어 있는 문화가
된다면 그 모든 성적 담론은 음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 오랜만이다”하면서 엉덩이 툭툭 치고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남자끼린데 뭐 어때’가
있으면서도, 남자끼리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관계일 때 그것이 용인되어 온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들을 일단 이야기되어야
하는 건데 펼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회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마치 헤테로 정상성에, 그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안에서 대입해서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1**

● **페미니즘 지식,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존중받으며 성적 경험을 하는
데에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소수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차별적 세계를 설명하는 지식과
그것을 함께 주고받는 동료의 존재가 있을 때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여전히 꺼내지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는 성적 경험과 욕망과
실천도 있음을 지적한다.

“나를 덜 꾸며도 눈치보지 않고, 혹은 누군가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같은 것에 차별이라고 느끼고,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도 내 의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페미니즘
도서들 덕분이었는데. 근데 내밀한 성적인 부분으로 갔을 땐
아직 많이 꺼내지지 않았고 얘기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례4**

“저는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로 지식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인식론적인. 그래서 정말 책이나 강의나 아니면 정말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의 관계나, 어쨌든 계속 생각이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다양한 자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게 굉장히 지지적인 방식이었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를 알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게 나에게, 지금의 내가 진짜 불건강하고, 저걸 얹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안전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뭔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나의 생각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지적인, 인지적인 그런 도움을 준 게 커뮤니티였어요.” **사례6**

● **성적 동의를 미디어에서 재현**

로맨스나 성적 관계를 재현하는 미디어 등에서 ‘성적 동의’를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재현해야 한다. 사례5 참가자는 드라마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능숙하지도 않게 묘사되는 부분을 지적한다.

“드라마에서 예를 들어 “키스해도 돼?” 이 진지한 말일 수 있는데, 진지한 말이고 동의를 구하는 좋은 행위인데. “키스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어리버리하거나 미숙하거나 저돌적이거나. 그런 하여튼 좀 핑트가 나간 요런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례5**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욕망, 폭력적이지 않은 안전한 섹슈얼리티, 평등하게 그려지는 친밀한 관계 더 많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져야 한다.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 더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트폭력에서 피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라도 평등한 관계를 그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3**

“.. 여성의 판타지 중심으로 하는 잡지도 사서 보고 했었는데, 저도 제 친구들도 동등한, 그런 기분 나쁘지 않은 성적 콘텐츠를 원하는 데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다른 어떤 맥락의 논의일 수 있지만, 안전한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꺼내지고 콘텐츠로 제작되고 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어요” **사례4**

개인들 간의 성적 동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인, 소속 집단, 미디어, 교육,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 영역에서 ‘동의’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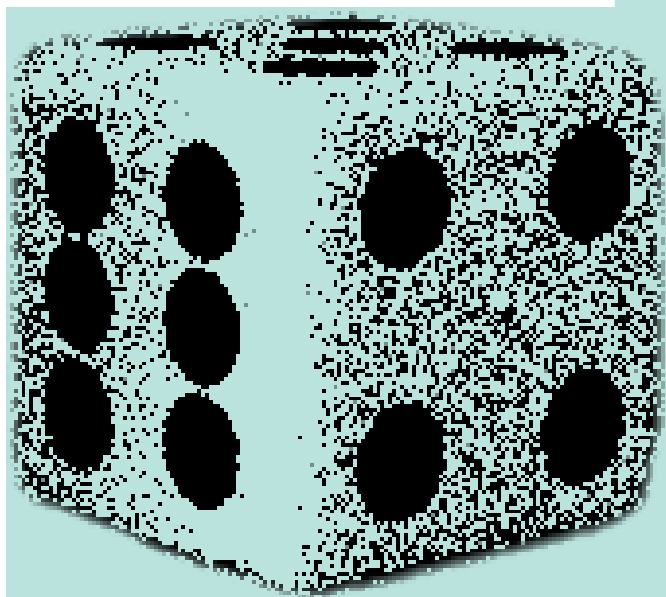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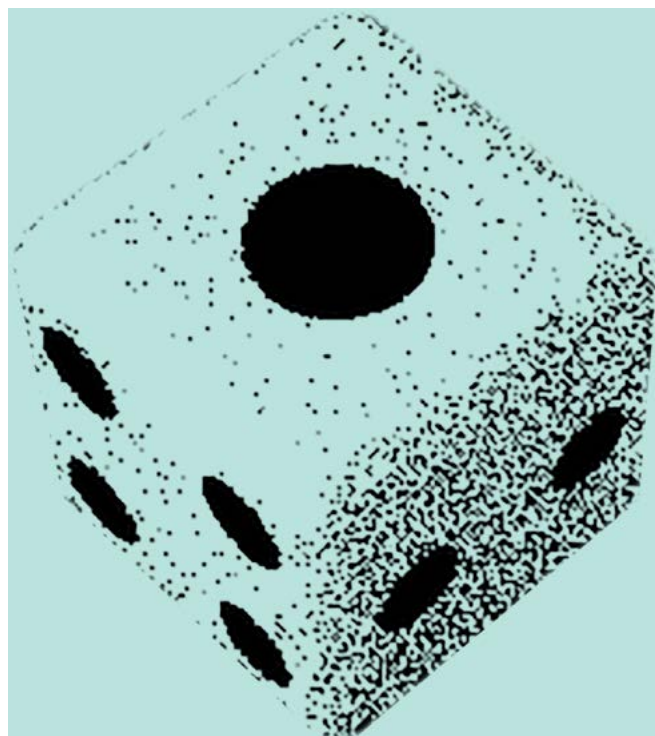
결론: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이번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는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중인식조사를 통해서 동의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의 지점까지 확실하게 자리잡지는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의’를 묻지 않는 것이 상황에 따라 더 자연스럽다가, ‘동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명시적인 말과 행동’으로 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어서 표면상으로 수락되는 경우, 한쪽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 방해, 제압되지 않는 평등한 관계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의라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심층인터뷰 분석에서는 적극적 합의가 어떤 원칙, 과정, 지향인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평등할 때, 성역할 및 성적 행위에 대한 규범에 갇히지 않을 때,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일 때, 소수자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존중할 때,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의가 원칙으로 자리잡을 때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성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적극적 합의’가 당연한 규범으로 자리잡는 사회를 상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회적 과제들이 연결된다.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몸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감정 욕망을 탐구하고 실천하고 발견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참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누군가 성적 행위의 결과로 위험에 처한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며 기꺼이 함께 해결하는 지지적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들이 낙인이나 통제 없이 동등한 성적 주체로서 행동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적극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개개인들의 협상력이 높아지려면 성별, 연령, 장애여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적극적 합의’는 모든 사회의 영역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성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앞당긴다. 강간문화를 끝내고 새로운 성문화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이다.



시작 START

연인, 부부, 파트너끼리는
언제든지 묻지 않고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을까?

내가
동의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

내가 아는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

그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이유는?

내가 거절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

“글쎄...”
“잘 모르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동의일까?

85

2
준비하기

만약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다면 나는
상대와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걸까?

상대가
내 동의를
구할 때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은?

싫다고 하는 상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수락을 받아냈다.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을까?

내가 아는 성매개감염,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검색 가능)

만약 내가 성매개감염에
걸렸다면 말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 이유는?

내가 아는 피임 방법,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검색 가능)
그 피임 방법은 사용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 이유는?

상대가
동의 또는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은
뭐가 있을까?

성적 행위 중
상대의 의사를
여러 번 묻는 건
분위기 깎까?

내가 상대의
동의를 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하게 됐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성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쉽다 VS 어렵다

미디어 속 주인공이
만취해서 필름이 끊겼는
데 눈을 떠 보니 알몸으로
다른 사람과 누워 있다.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내가 하는 생각은?

나는 상대가 동의를 구할 때
내키지 않지만 수락한 경험이
있다 VS 없다

내 기준
피임,
성매개감염,
관계 형태 등에
관해
합의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끝 END

워크숍 방법

1.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이
직접 워크숍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해요.

2.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둘러앉고
게임말을 '시작'칸에 올려 놓아요.

3.

참여자 중 한 명이 주사위를 굴려서
1, 2가 나오면 1칸, 3, 4가 나오면 2칸, 5, 6이 나오면 3칸
게임말을 이동해요.

4.

도착한 칸에 적혀 있는 질문에 모두가 돌아가며
답변하면서 다 같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에 단답식으로 답변하기보다 구체적인 이유,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할 때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어요.

5.

모두 이야기를 마치면 다음 참여자가
다시 주사위를 굴려요.

6.

'끝'칸에 도착하면
서로 소감을 나누는 후 워크숍을 마쳐요.

86

적극적
협의를
시작할
때

워크숍 소개

적극적 협의를 위한 워크숍은 적극적 협의를 준비하면서 나의
인식을 점검하고 함께 토론하기 위한 도구로 제작되었습니다.
워크시트에는 적극적 협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질문과
관련된 직·간접적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 뭘 느꼈는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질문을 다뤄 왔는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관점으로 더 고려해야 하는 지점은 없는지,
여러 각도로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적극적 협의에 관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7

2
준비하기

준비물

워크시트, 게임말, 주사위

누가 어떻게 활용하나요?

자신의 성적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충분히 이야기 나누려면 소규모(4~6인 이하)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참여자가 많을 때는 모둠별로 진행해보세요.

개인의 성적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꼭 자발적인 참여자끼리 모여서 진행하기를 권장해요.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개인이 혼자 생각을 정리해보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적극적 합의를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섹슈얼리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성적 실천이나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88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은 어떻게 정하나요?

워크숍 시작 전에 참여자들과 함께 활동 약속을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요. 예를 들면 다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 ① 함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워크숍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요.
- ②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워크숍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적인 이야기는 외부에 옮기지 않기로 약속해요.
- ③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혼자서 말할 시간을 독점하지 않아요.
- ④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요. 내가 알리기 원치 않거나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⑤ 워크숍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어'를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누군가 '안전어'를 사용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요.
(예시1) 말하기 불편한 주제일 때는 두 손날을 교차해서 X 표시를 보여줘요.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예시2) 듣기 불편한 주제일 때는 "띠로리~"라고 말해요. 다른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아요.
- ⑥ 다른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 ⑦ 모든 참여자는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신체조건, 피부색, 장애, 병력, 연애와 결혼 여부 및 형태, 임신 출산 여부 등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과 함께 활동함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요.
- ⑧ 워크숍을 진행하다가 차별·배제·혐오 표현이 나왔을 때는 공동으로 대응해요. 어떤 의미/의도인지 되물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도 있어요.
- ⑨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평등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의 태도로 함께 변화해가요.

89

2 준비하기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이 체크리스트는 성적 주체로서 나의 현재 상태와 욕구를 돌아보는 **PART 1**, 적극적 합의를 하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대화하고 점검하면 좋은 내용을 담은 **PART 2**, 내가 적극적 합의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PART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 나 혼자 해봐도 좋고, 파트너와 각자 해본 뒤 서로 비교해봐도 좋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봐도 좋아요.

90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91

2 준비하기

PART 1. 성적 주체인 나 돌아보기

내가 원하는 만큼 중복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문항이 없거나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다면 빈 체크박스 옆에 직접 작성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출생 신고된 지정 성별은

여성

남성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 정체성은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mtf ftm)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

고민 중

내 성별 (Gender)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주로 받는 느낌은

여성적

남성적

중성적

무성적

헛갈림

내가 성적(sexual)-감정적(romantic) 끌림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은

- 여성 남성
-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성별
- 성별을 구분하지 않음
- 성적·감정적 끌림을 느끼지 않음
-

내가 성적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 성매개감염 :
- 질병·질환 :
- 알레르기 :
- 보형물 :
-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상태(피로·스트레스 등)
-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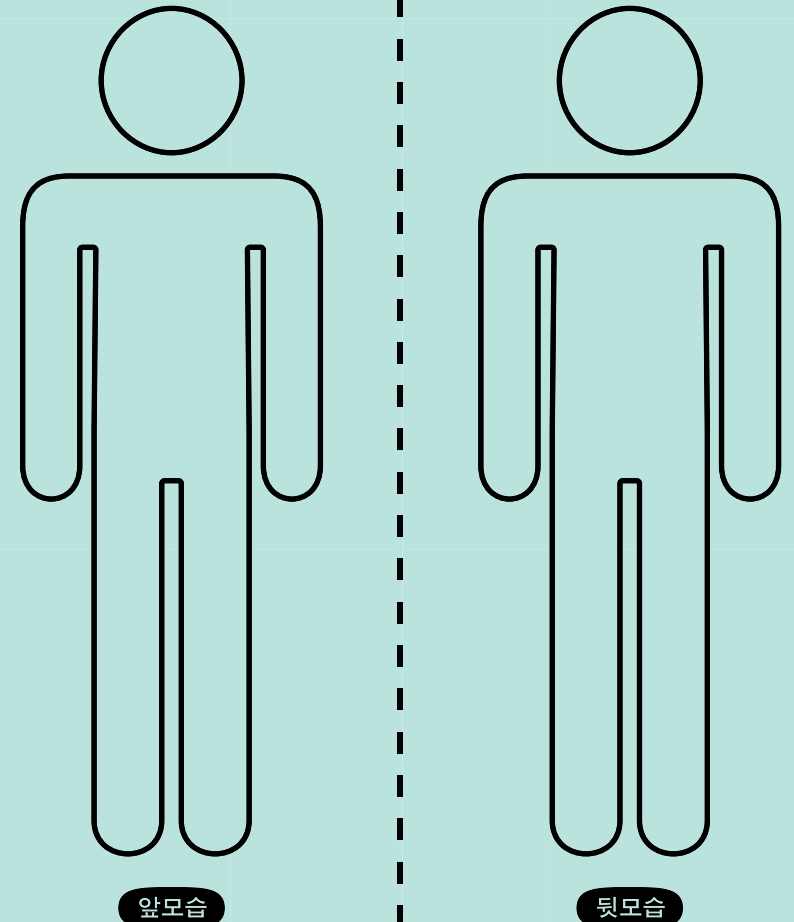
내가 성적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장애는

- 신체적 장애 :
- 정신적 장애 :
- PTSD :
- 공포증 :
- 없음
-

나의 성감대는

나의 몸을 만졌을 때 좋거나 싫은 성감대가 있다면 색깔별로 표시해보세요.

- 빨간색 : 싫어요
- 노란색 : 그때그때 달라요
- 파란색 : 좋아요



나의 선호도는

오른쪽 키워드와 성적 행위를 연관 지어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색깔별로 칠해보세요.

- 빨간색 : 너무 싫어요!
- 주황색 : 별로예요.
- 노란색 : 그때그때 달라요.
- 초록색 : 괜찮아요.
- 파란색 : 정말 좋아요!
- 보라색 :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겪어보고 판단할래요.

내용을 추가하고 싶거나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다면 빈칸에 직접 작성해보세요.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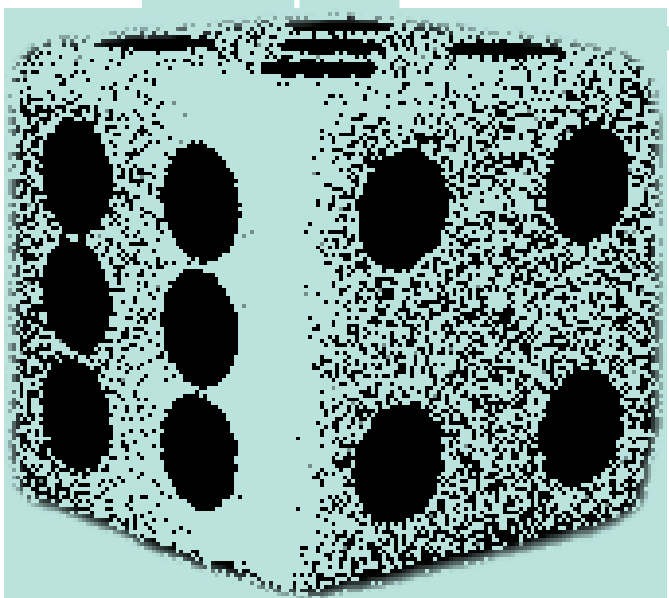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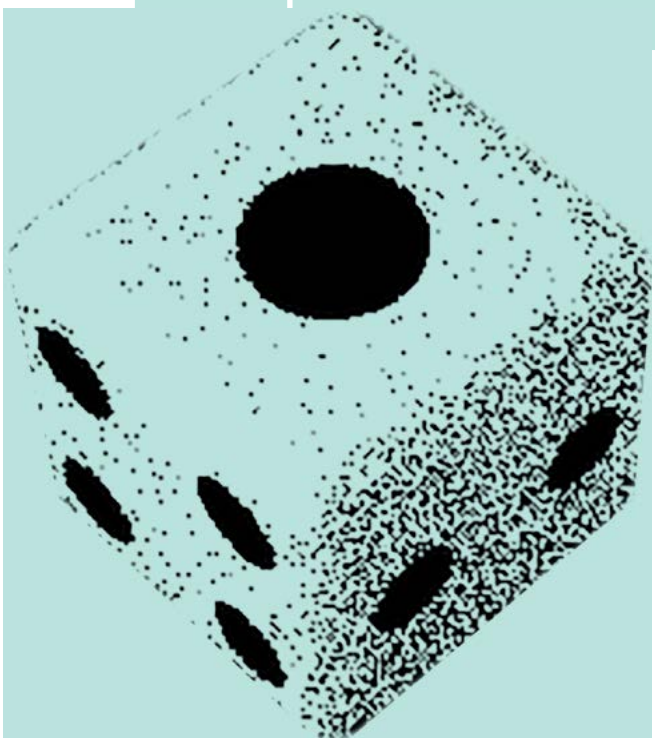
적극적인 표현을 시작할 때

95

2 준비하기

질문	유혹	우리만의 암호·은어	야한 말	마주치는 눈빛
직설적인	은유적인	상상을 자극하는	지식·정보가 많은	호기심이 많은
정열적인	격렬한	안전한	부드러운	모험적인
배려하는	갑갑이 예민한	부끄러움이 많은	스릴 있는	상스러운
밤	춘저녁	새벽	아침	낮
무드등	촛불·캔들	현란한 조명	햇빛	달빛
폭신폭신한	딱딱한	말랑말랑한	매끄러운	사각거리는
촉촉한	끈적끈적한	따뜻한	시원한	차가운
고요한	음악	생활 소음	도시 소음	자연의 소리
농담·유머	애정표현	칭찬	애교	약간의 알코올

적극적 참여를 위한 워크숍



85

2 준비하기

PART 2-2. 적극적 합의를 위한 우리의 관계 점검하기

나와 파트너의 권력 찾기

나와 파트너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찾아보고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파트너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힘이 더 세거나, 몸집이 더 크거나, 경험이 더 많거나, 돈을 더 잘 벌거나, 성에 관한 지식이 더 많으면, 그것도 내가 가진 권력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장애가 있는데 파트너는 장애가 없거나, 내가 파트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파트너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파트너가 가진 권력일 수 있어요.

✓ 내가 가진 권력은

-
-
-
-
-
-
-

✓ 파트너가 가진 권력은

-
-
-
-
-
-
-

98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99

2 준비하기

평등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의사소통 돌아보기

나와 파트너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문항별로 그래프 위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위치와 파트너가 생각하는 우리의 위치를 각각 표시하고 비교해보세요. 서로 생각하는 위치가 같다면 왜 같은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일상에서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① 만날 장소와 시간을 함께 결정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② 뭘 먹을지 뭘 할지 함께 결정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③ 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함께 논의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④ 가사·돌봄 등 일을 공정하게 나눠서 맡으며, 각자 맡은 일을 동등하게 수행한다.		
⑤ 서로 인간관계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통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⑥ 대화하다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의견 차이를 존중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

성적상황에서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⑦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 함께 결정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⑧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⑨ 피임, 성매개감염 예방 등에 관해 함께 상의하여 실천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⑩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솔직하게 피드백하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100

적극적인 의견을 시작할 때

101

2 준비하기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평등할까?

나와 파트너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해보세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의 권력이 훨씬 큼	나의 권력이 큰 편	평등함	파트너의 권력이 큰 편	파트너의 권력이 훨씬 큼

그 이유는

PART 3.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 중 내가 해당하는 문항은 몇 개인지 체크해보세요.
파트너가 해당하는 문항은 몇 개인지 체크해보고, 어떤 문항이 나와 같거나 다른지 비교해보아도 좋아요.

나 파트너

명시적으로

- 01 동의 여부를 말 또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표현한다.
- 02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서로의 눈빛,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충분히 관찰한다.
- 03 싫을 때는 물론이고 잘 모르겠거나 시간이 더 필요할 때도 동의하지 않는다.
- 04 거절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05 동의 여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미리 이야기 나눈다.

의식이 있을 때

- 06 성적 행위를 하기 전에는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거나 상대방에게 권하지 않는다.
- 07 잠들었거나 취한 사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08 의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102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103

2 준비하기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 09 무엇이 성적 행위인지, 그 행위에 내가 동의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10 나와 상대의 나이, 장애, 건강 상태 등이 성적 행위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 11 성적 행위를 하면 나와 상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있다.
- 12 피임 여부, 성매개감염 여부, 혼인 여부 등에 관해 숨기거나 속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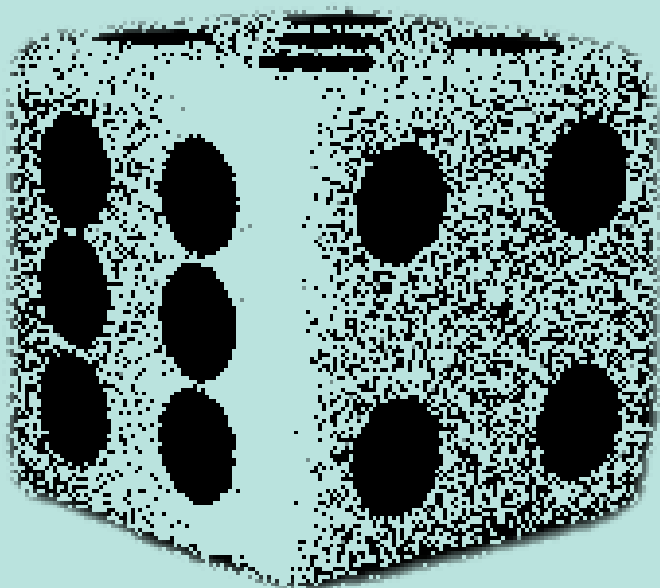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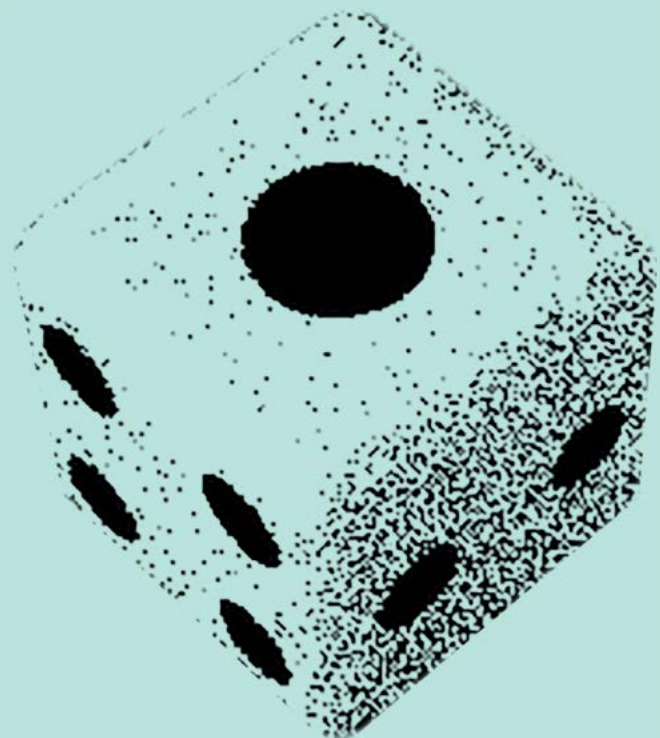
평등하게

- 13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 14 일상에서 편안하게 적극적 합의를 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15 나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 16 피임, 성매개감염 예방조치 등을 혼자 고민하지 않으며 함께 의논하고 정보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실천한다.

모든 과정에서 항상

- 17 예전에 했던 성적 행위라도 할 때마다 매번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18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는 물론,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19 상대가 동의할지 거절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열린 태도로 기다린다.
- 20 상대가 거절하면 받아들이고, 설령 성적 행위를 하던 도중이라도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적극적 참여를 위한 워크숍



부록1.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해설

유형 1 실시간 소통형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대화가 먼저!

상대방과 끝없는 대화를 통해 겹치는 지점을 찾는 걸 즐거워해요.

상대의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확인해요.

'상대방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물어보는 당신!

스킨십이나 섹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서도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적극적 합의를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최고의 적극적 합의형 인간으로 임명합니다. 짹짹!

유형 2 척하면 척! 눈치 만점형

상대방의 상태를 예리하게 살피는 당신.

날카로운 시선과 세심한 태도로 상대의 의사를 확인해요.

기민한 눈치와 배려 깊은 태도가 당신의 강점!

말로 물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는지 빠르고 정확한 눈치로 상황과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재능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내 상태를 알아주는 당신의 배려 덕분에,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다만 눈치에만 기대면 상대의 의사를 오해할 수도 있는 법!

상대와의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유 드려요.

106

적극적 합의를 시간합류형

107

부록

유형 3 호기심 많은 모험가형

호기심이 아주 많은 유형.

모르는 것도 많지만,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이에요.

끝없는 탐구심이 당신의 원동력!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이나 인터넷 등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찾기보다는 직접 시도해보며 몸으로 익히는 편이에요.

그런 당신과 함께라면 지루할 틈 없이 매일매일 즐거울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즐기는 당신, 가끔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세상으로의 여행도 파트너와 함께라면 더 즐거울 거예요.

유형 4 백과사전형

뭐든 하기 전에 정보를 찾아봐야 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두어야 마음이 놓여요.

‘아는 것은 나의 힘’이 신조인 당신!

이것저것 알아둬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책이나 인터넷,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미리 정보를 찾아두는 편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당신 덕분에 상대방 역시 고민의 시간도 줄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세심한 배려가 함께 한다면 관계도 더 즐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실시간
소통형

눈치만점형

모험가형

백과사전형

부록2.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적극적 합의와 동의에 관해 더 알고 싶을 때

단행본

- 『동이가 서툰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 펠리사 캉(글), 제니 래섬(그림), 이정희(옮김), 다산어린이, 2021
- 『그래서, 동이가 뭐야?』
저스틴 행콕(글), 푸크시아 맥커리(그림), 김정은(옮김이), 픽(잇츠북), 2021
- 『동의 : 너와 나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레이첼 브라이언, 노지양(옮김이), 아울북, 2020
- 『성적 동의 : 지금 강조해야 할 것』
밀레나 포포바, 함현주(옮김이), 마티, 2020
- 『에스 민즈 에스』
재클린 프리드먼, 제시가 발렌티(엮은이), 송예슬(옮김이), arte(아르테), 2020
-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
양동욱, 헤이북스, 2020

자료집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16세 미만의 ‘동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워크북』
한국성폭력상담소

108

적극적 합의와 동의에 관해 더 알고 싶을 때

109

부록

나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해 더 알고 싶을 때

단행본

- 『소녀×몸 교과서』
윤정원, 김민지, 우리학교, 2021
- 『질의응답 : 우리가 궁금했던 여성 성기의 모든 것』
나나 브로크만, 엘렌 스토켄 달, 김명남(옮김이), 윤정원(감수), 열린책들, 2019
- 『여자들의 섹스북』
한 채윤, 이매진, 2019
-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나선숙(옮김이), 예문아카이브, 2016
-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 소년부터 성년까지 남자가 꼭 알아야 할 성 A to Z』
인티 차베즈 페레즈, 이세진(옮김이), 문예출판사, 2020
- 『우리 몸 우리 자신』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지은이), 또문몸살림터(옮김이), 또하나의문화, 2005

자료집

-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대학 성지식백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자원활동가팀 몬스테라 1기
-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부록3.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설문지 및 응답표

설문지 내용

이 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응답 결과를 통해 '성적 동의'를 둘러싼 개인들의 경험 및 인식과 한국 사회의 성문화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문 문항에는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화된 자료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전달되고 추후 가공되어 관련 활동 및 연구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업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되며, 업체에서는 설문 등 안내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적 동의'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조사 내용 관련 문의: (이메일) f.culture@sisters.or.kr (전화) 02-338-2890
- 개인 정보 처리 관련 문의 : 업체 고객센터

Q1. 다음 문장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중 하나입니다. 문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0

성폭력
합의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111

부록

Q2. 다음 문장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중 하나입니다. 문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3. 다음 문장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중 하나입니다. 문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4. 다음 문장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중 하나입니다. 문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5. 다음 문장은 '성적 동의'에 대한 여러 인식 중 하나입니다. 문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6. 다음 문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적 동의'의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적 동의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7. 다음 문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적 동의'의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적 동의는 명시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구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8. 다음 문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적 동의'의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적 동의는 잠들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9. 다음 문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적 동의'의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를 이루어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2

성적 폭력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

113

부록

Q10. 다음 문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적 동의'의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1. 다음 문장은 '성적 의사소통'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2. 다음 문장은 '성적 의사소통'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3. 다음 문장은 '성적 의사소통'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4. 다음 문장은 '성적 의사소통'의 여러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5. 다음 문장은 '성적 의사소통'의 여러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6. 다음 문장은 '성적 의사소통'의 여러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7. 귀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고 있나요?

- ① 항상 묻는다 ⇨ Q18번으로
- ② 상황에 따라 묻는다 ⇨ Q18번으로
- ③ 묻지 않는다 ⇨ Q20번으로

114

성적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

115

부록

Q18.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주로 어느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나요?

- ①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성적 행위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묻는다.
- ②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상대가 불편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위일 때만 다시 묻는다.
- ③ 처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작할 때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묻지 않는다.
- ④ 모텔, 집, 침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 않는다.
- ⑤ 기타(직접 입력) :

Q19.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 ①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지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
- ② 상대방과 합의한 암호나 은어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 ③ '같이 시간을 보내자', '모텔에 가자' 등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한다.
- ④ 느낌으로 파악한다.
- ⑤ 기타(직접 입력) :

Q20.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단 둘이 모텔 또는 상대의 집에 갔다
- ② 성적 대화를 주고 받았다
- ③ 같이 술을 마셨다
- ④ 클럽, 술집, 파티 등의 장소에서 만났다
- ⑤ 그 전에 다른 스킨십을 했다
- ⑥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 ⑦ 지속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이다
- ⑧ 상대방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 ⑨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다

⑩ 기타 (직접 입력) :

⑪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다 ⇨ Q21번으로

Q21. 귀하는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동의한 적 있나요?

- ① 그렇다 ⇨ Q22번으로
- ② 아니다 ⇨ Q23번으로

Q22. 귀하는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동의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 ①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 ②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
- ③ 분위기를 망칠까봐
- ④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니까
- 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 ⑥ 거절하면 상대방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 ⑦ 불이익을 당할까봐
- ⑧ 기타 (직접 입력) :

Q23. 다음 중 스킨십이나 성관계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1위~5위까지 순위대로 선택해주세요.

- ① 나의 욕망와 기분
- ② 상대방의 욕망와 기분
- ③ 피임
- ④ 성병 예방
- ⑤ 위생과 청결
- ⑥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
- ⑦ 애정과 친밀한 느낌
- ⑧ 관계의 유지
- ⑨ 성적 판타지의 실현
- ⑩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 ⑪ 사생활의 보호

Q24. (주관식) 상대방과 어떤 동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귀하의 의견이 존중됐다고 느끼는지 말씀해주세요.

116

적극적
참여
의향
을
시
정
할
것
을
표
시
함

117

부
록

응답자 특성

Q25. 귀하의 '성별'을 말씀해주세요.

- ① 여성
- ② 남성
- ③ 트랜스 여성
- ④ 트랜스 남성
- ⑤ 고민중
- ⑥ 기타 :

Q26.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나요?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이상

Q27. 귀하의 '성적 지향'을 말씀해주세요.

- ① 이성애
- ② 동성애
- ③ 양성애
- ④ 무성애
- ⑤ 범성애
- ⑥ 고민중
- ⑦ 기타 :

Q28. 귀하의 '장애여부'를 말씀해주세요.

- ① 유
- ② 무
- ③ 기타:

심층 인터뷰 참가자 모집

Q29. 귀하의 성적 동의 경험에 대하여 인터뷰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를 남겨주세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신 내용은 익명화된 자료로 가공되어 '적극적 합의'를 알리는 활동 및 연구에만 활용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참가비를 드립니다. * 참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안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1~5번 문항)

조사A의 전체, 성별, 연령별 응답

(단위: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Q1.	전체	18.7 (112)	32.0 (192)	38.2 (229)	11.2 (67)	100.0 (600)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남성	11.0 (33)	28.7 (86)	46.0 (138)	14.3 (43)	100.0 (300)
	여성	26.3 (79)	35.3 (106)	30.3 (91)	8.0 (24)	100.0 (300)
	10대	28.0 (42)	36.7 (55)	32.7 (49)	2.7 (4)	100.0 (150)
	20대	25.3 (38)	36.0 (54)	33.3 (50)	5.3 (8)	100.0 (150)
	30대	11.3 (17)	24.7 (37)	43.3 (65)	20.7 (31)	100.0 (150)
	40대	10.0 (15)	30.7 (46)	43.3 (65)	16.0 (24)	100.0 (150)
Q2.	전체	0.5 (3)	2.8 (17)	14.7 (88)	82.0 (492)	100.0 (600)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남성	1.0 (3)	5.0 (15)	20.0 (60)	74.0 (222)	100.0 (300)
	여성	- (0)	0.7 (2)	9.3 (28)	90.0 (270)	100.0 (300)
	10대	- (0)	4.0 (6)	12.0 (18)	84.0 (126)	100.0 (150)
	20대	0.7 (1)	2.0 (3)	14.7 (22)	82.7 (124)	100.0 (150)
	30대	1.3 (2)	4.7 (7)	16.7 (25)	77.3 (116)	100.0 (150)
	40대	- (0)	0.7 (1)	15.3 (23)	84.0 (126)	100.0 (150)

118

성
폭
력
의
인
식
에
대
한
인
식

119

부
록

Q3.	전체	34.5 (207)	32.2 (193)	28.5 (171)	4.8 (29)	100.0 (600)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	남성	22.3 (67)	36.7 (110)	34.3 (103)	6.7 (20)	100.0 (300)
	여성	46.7 (140)	27.7 (3)	22.7 (68)	3.0 (9)	100.0 (300)
	10대	45.3 (68)	33.3 (50)	18.7 (28)	2.7 (4)	100.0 (150)
	20대	44.0 (66)	34.7 (52)	17.3 (26)	4.0 (6)	100.0 (150)
	30대	24.0 (36)	32.7 (49)	35.3 (53)	8.0 (12)	100.0 (150)
	40대	24.7 (37)	28.0 (42)	42.7 (64)	4.7 (7)	100.0 (150)
Q4.	전체	11.0 (66)	28.5 (171)	40.8 (245)	19.7 (118)	100.0 (600)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남성	8.7 (26)	31.0 (93)	44.0 (132)	16.3 (49)	100.0 (300)
	여성	13.3 (40)	26.0 (78)	37.7 (113)	23.0 (69)	100.0 (300)
	10대	12.7 (19)	36.7 (55)	38.7 (58)	12.0 (18)	100.0 (150)
	20대	10.0 (15)	28.7 (43)	41.3 (62)	20.0 (30)	100.0 (150)
	30대	9.3 (14)	24.0 (36)	40.0 (60)	26.7 (40)	100.0 (150)
	40대	12.0 (18)	24.7 (37)	43.3 (65)	20.0 (30)	100.0 (150)

Q5.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전체	34.7 (208)	34.8 (209)	25.2 (151)	5.3 (32)	100.0 (600)
	남성	20.7 (62)	39.3 (118)	32.0 (96)	8.0 (24)	100.0 (300)
	여성	48.7 (146)	30.3 (91)	18.3 (55)	2.7 (8)	100.0 (300)
	10대	34.7 (52)	36.7 (55)	24.0 (36)	4.7 (7)	100.0 (150)
	20대	41.3 (62)	39.3 (59)	15.3 (23)	4.0 (6)	100.0 (150)
	30대	29.3 (44)	28.7 (43)	33.3 (50)	8.7 (13)	100.0 (150)
	40대	33.3 (50)	34.7 (52)	28.0 (42)	4.0 (6)	100.0 (150)

120

독립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가

121

부록

조사A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응답

	성별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Q1.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남성	10대	12.0 (9)	37.3 (28)	49.3 (37)	1.3 (1)	100.0 (75)	
		20대	18.7 (14)	33.3 (25)	40.0 (30)	8.0 (6)	100.0 (75)	
		30대	6.7 (5)	18.7 (14)	46.7 (35)	28.0 (21)	100.0 (75)	
		40대	6.7 (5)	25.3 (19)	48.0 (36)	20.0 (15)	100.0 (75)	
	여성	10대	44.0 (33)	36.0 (27)	16.0 (12)	4.0 (3)	100.0 (75)	
		20대	32.0 (27)	38.7 (29)	26.7 (20)	2.7 (2)	100.0 (75)	
		30대	16.0 (12)	30.7 (23)	40.0 (30)	13.3 (10)	100.0 (75)	
		40대	13.3 (10)	36.0 (27)	38.7 (29)	12.0 (9)	100.0 (75)	
	Q2.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남성	10대	- (0)	6.7 (5)	16.0 (12)	77.3 (58)	100.0 (75)
			20대	1.3 (1)	2.7 (2)	22.7 (17)	73.3 (55)	100.0 (75)
			30대	2.7 (2)	9.3 (7)	21.3 (16)	66.7 (50)	100.0 (75)
			40대	- (0)	1.3 (1)	20.0 (15)	78.7 (59)	100.0 (75)
여성		10대	- (0)	1.3 (1)	8.0 (6)	90.7 (68)	100.0 (75)	
		20대	- (0)	1.3 (1)	6.7 (5)	92.0 (69)	100.0 (75)	
		30대	- (0)	- (0)	12.0 (9)	88.0 (66)	100.0 (75)	
		40대	- (0)	- (0)	10.7 (8)	89.3 (67)	100.0 (75)	

Q3.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	남성	10대	25.3 (19)	44.0 (33)	26.7 (20)	4.0 (3)	100.0 (75)	
		20대	29.3 (22)	36.0 (27)	28.0 (21)	6.7 (5)	100.0 (75)	
		30대	14.7 (11)	33.3 (25)	38.7 (29)	13.3 (10)	100.0 (75)	
		40대	20.0 (15)	33.3 (25)	44.0 (33)	2.7 (2)	100.0 (75)	
	여성	10대	65.3 (49)	22.7 (17)	10.7 (8)	1.3 (1)	100.0 (75)	
		20대	58.7 (44)	33.3 (25)	6.7 (5)	1.3 (1)	100.0 (75)	
		30대	33.3 (25)	32.0 (24)	32.0 (24)	2.7 (2)	100.0 (75)	
		40대	29.3 (22)	22.7 (17)	41.3 (31)	6.7 (5)	100.0 (75)	
	Q4.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남성	10대	9.3 (7)	41.3 (31)	38.7 (29)	10.7 (8)	100.0 (75)
			20대	8.0 (6)	29.3 (22)	42.7 (32)	20.0 (15)	100.0 (75)
			30대	9.3 (7)	24.0 (18)	42.7 (32)	24.0 (18)	100.0 (75)
			40대	8.0 (6)	29.3 (22)	52.0 (39)	10.7 (8)	100.0 (75)
여성		10대	16.0 (12)	32.0 (24)	38.7 (29)	13.3 (10)	100.0 (75)	
		20대	12.0 (9)	28.0 (21)	40.0 (30)	20.0 (15)	100.0 (75)	
		30대	9.3 (7)	24.0 (18)	37.3 (28)	29.3 (22)	100.0 (75)	
		40대	16.0 (12)	20.0 (15)	34.7 (26)	29.3 (22)	100.0 (75)	

122

독립적 의사 결정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

123

부록

Q5.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남성	10대	20.0 (15)	44.0 (33)	30.7 (23)	5.3 (4)	100.0 (75)
		20대	28.0 (21)	41.3 (31)	22.7 (17)	8.0 (6)	100.0 (75)
		30대	14.7 (11)	33.3 (25)	38.7 (29)	13.3 (10)	100.0 (75)
		40대	20.0 (15)	38.7 (29)	36.0 (27)	5.3 (4)	100.0 (75)
	여성	10대	49.3 (37)	29.3 (22)	17.3 (13)	4.0 (3)	100.0 (75)
		20대	54.7 (41)	37.3 (28)	8.0 (6)	- (0)	100.0 (75)
		30대	44.0 (33)	24.0 (18)	28.0 (21)	4.0 (3)	100.0 (75)
		40대	46.7 (35)	30.7 (23)	20.0 (15)	2.7 (2)	100.0 (75)

조사B의 전체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Q1.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54.0 (231)	27.3 (117)	15.4 (66)	3.3 (14)	100.0 (428)
Q2.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0.5 (2)	0.9 (4)	6.3 (27)	92.3 (395)	100.0 (428)
Q3.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	65.4 (280)	24.8 (106)	8.6 (37)	1.2 (5)	100.0 (428)
Q4.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49.5 (212)	18.0 (77)	17.1 (73)	15.4 (66)	100.0 (428)
Q5. 여성의 노(NO)는 설득하면 예스(YES)로 바뀔 수 있다	72.0 (308)	21.3 (91)	5.6 (24)	1.2 (5)	100.0 (428)

124

성폭력
예방
교육
의
필요
성
조사
결과

125

부
록

상담소가 제시한 '적극적 합의' 원칙에 대한 의견 (6~10번 문항)

조사A의 전체, 성별, 연령별 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Q6. 성적 동의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 (0)	1.8 (11)	21.2 (127)	77.0 (462)	100.0 (600)
	남성	- (0)	1.3 (4)	28.0 (84)	70.7 (212)	100.0 (300)
	여성	- (0)	2.3 (7)	14.3 (43)	83.3 (250)	100.0 (300)
	10대	- (0)	4.7 (7)	28.0 (42)	67.3 (101)	100.0 (150)
	20대	- (0)	- (0)	19.3 (29)	80.7 (121)	100.0 (150)
	30대	- (0)	1.3 (2)	20.7 (31)	78.0 (117)	100.0 (150)
	40대	- (0)	1.3 (2)	16.7 (25)	82.0 (123)	100.0 (150)
Q7. 성적 동의는 명시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구해야 한다	전체	2.5 (15)	10.7 (64)	39.8 (239)	47.0 (282)	100.0 (600)
	남성	3.3 (10)	14.0 (42)	41.7 (125)	41.0 (123)	100.0 (300)
	여성	1.7 (5)	7.3 (22)	38.0 (114)	53.0 (159)	100.0 (300)
	10대	1.3 (2)	12.7 (19)	45.3 (68)	40.7 (61)	100.0 (150)
	20대	2.7 (4)	8.7 (13)	46.0 (69)	42.7 (64)	100.0 (150)
	30대	4.7 (7)	11.3 (17)	36.7 (55)	47.3 (71)	100.0 (150)
	40대	1.3 (2)	10.0 (15)	31.3 (47)	57.3 (86)	100.0 (150)

Q8.	전체	7.0	8.3	22.2	62.5	100.0
성적 동의는 잠들거나		(42)	(50)	(133)	(375)	(600)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남	7.0	11.0	30.0	52.0	100.0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21)	(33)	(90)	(156)	(300)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여	7.0	5.7	14.3	73.0	100.0
		(21)	(17)	(43)	(219)	(300)
	10대	7.3	10.7	25.3	56.7	100.0
		(11)	(16)	(38)	(85)	(150)
	20대	4.7	9.3	16.0	70.0	100.0
		(7)	(14)	(24)	(105)	(150)
	30대	10.0	7.3	30.0	52.7	100.0
		(15)	(11)	(45)	(79)	(150)
	40대	6.0	6.0	17.3	70.7	100.0
		(9)	(9)	(26)	(106)	(150)
Q9.	전체	4.0	18.8	36.3	40.8	100.0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24)	(113)	(218)	(245)	(600)
과정에서 항상 동의가	남	6.7	28.0	40.3	25.0	100.0
이루어져야 한다		(20)	(84)	(121)	(75)	(300)
	여	1.3	9.7	32.3	56.7	100.0
		(4)	(29)	(97)	(170)	(300)
	10대	2.0	14.7	36.0	47.3	100.0
		(3)	(22)	(97)	(71)	(150)
	20대	5.3	17.3	32.7	44.7	100.0
		(8)	(26)	(49)	(67)	(150)
	30대	5.3	21.3	39.3	34.0	100.0
		(8)	(32)	(59)	(51)	(150)
	40대	3.3	22.0	37.3	37.3	100.0
		(5)	(33)	(56)	(56)	(150)

126

성적행위 동의율

127

부록

Q10.	전체	0.3	3.3	38.7	57.7	100.0
성적 행위에 대한		(2)	(20)	(232)	(346)	(600)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남	0.3	5.7	51.7	42.3	100.0
바탕으로 동의가		(1)	(17)	(155)	(127)	(300)
이루어져야 한다	여	0.3	1.0	25.7	73.0	100.0
		(1)	(3)	(77)	(219)	(300)
	10대	0.7	2.0	37.3	60.0	100.0
		(1)	(3)	(56)	(90)	(150)
	20대	-	2.0	31.3	66.7	100.0
		(0)	(3)	(47)	(100)	(150)
	30대	0.7	2.0	44.7	52.7	100.0
		(1)	(3)	(67)	(79)	(150)
	40대	-	7.3	41.3	51.3	100.0
		(0)	(11)	(62)	(77)	(150)

조사A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응답

	성별	연령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Q6. 성적 동의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	10대	- (0)	2.7 (2)	38.7 (29)	58.7 (44)	100.0 (75)
		20대	- (0)	- (0)	26.7 (20)	73.3 (55)	100.0 (75)
		30대	- (0)	1.3 (1)	24.0 (18)	74.7 (56)	100.0 (75)
		40대	- (0)	1.3 (1)	22.7 (17)	76.0 (57)	100.0 (75)
		10대	- (0)	6.7 (5)	17.3 (13)	76.0 (57)	100.0 (75)
		20대	- (0)	- (0)	12.0 (9)	88.0 (66)	100.0 (75)
		30대	- (0)	1.3 (1)	17.3 (13)	81.3 (61)	100.0 (75)
		40대	- (0)	1.3 (1)	10.7 (8)	88.0 (66)	100.0 (75)
	여성	10대	1.3 (1)	8.0 (6)	44.0 (33)	46.7 (35)	100.0 (75)
		20대	4.0 (3)	5.3 (4)	44.0 (33)	46.7 (35)	100.0 (75)
		30대	1.3 (1)	10.7 (8)	34.7 (26)	53.3 (40)	100.0 (75)
		40대	- (0)	5.3 (4)	29.3 (22)	65.3 (49)	100.0 (75)

128

정기표준
통계조사

129

부록

Q8. 성적 동의는 잠들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	10대	9.3 (7)	8.0 (6)	37.3 (28)	45.3 (34)	100.0 (75)
		20대	1.3 (1)	14.7 (11)	25.3 (19)	58.7 (44)	100.0 (75)
		30대	8.0 (6)	10.7 (8)	36.0 (27)	45.3 (34)	100.0 (75)
		40대	9.3 (7)	10.7 (8)	21.3 (16)	58.7 (44)	100.0 (75)
		10대	5.3 (4)	13.3 (10)	13.3 (10)	68.0 (51)	100.0 (75)
		20대	8.0 (6)	4.0 (3)	6.7 (5)	81.3 (61)	100.0 (75)
		30대	12.0 (9)	4.0 (3)	24.0 (18)	60.0 (45)	100.0 (75)
		40대	2.7 (2)	1.3 (1)	13.3 (10)	82.7 (62)	100.0 (75)
	여성	10대	2.7 (2)	22.7 (17)	38.7 (29)	36.0 (27)	100.0 (75)
		20대	6.7 (5)	26.7 (20)	40.0 (30)	26.7 (20)	100.0 (75)
		30대	10.7 (8)	32.0 (24)	41.3 (31)	16.0 (12)	100.0 (75)
		40대	6.7 (5)	30.7 (23)	41.3 (31)	21.3 (16)	100.0 (75)
		10대	1.3 (1)	6.7 (5)	33.3 (25)	58.7 (44)	100.0 (75)
		20대	4.0 (3)	8.0 (6)	25.3 (19)	62.7 (47)	100.0 (75)
		30대	- (0)	10.7 (8)	37.3 (28)	52.0 (39)	100.0 (75)
		40대	- (0)	13.3 (10)	33.3 (25)	53.3 (40)	100.0 (75)

Q9.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	10대	2.7 (2)	22.7 (17)	38.7 (29)	36.0 (27)	100.0 (75)
		20대	6.7 (5)	26.7 (20)	40.0 (30)	26.7 (20)	100.0 (75)
		30대	10.7 (8)	32.0 (24)	41.3 (31)	16.0 (12)	100.0 (75)
		40대	6.7 (5)	30.7 (23)	41.3 (31)	21.3 (16)	100.0 (75)
		10대	1.3 (1)	6.7 (5)	33.3 (25)	58.7 (44)	100.0 (75)
		20대	4.0 (3)	8.0 (6)	25.3 (19)	62.7 (47)	100.0 (75)
		30대	- (0)	10.7 (8)	37.3 (28)	52.0 (39)	100.0 (75)
		40대	- (0)	13.3 (10)	33.3 (25)	53.3 (40)	100.0 (75)

Q10.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	10대	- (0)	2.7 (2)	50.7 (38)	46.7 (35)	100.0 (75)
		20대	- (0)	4.0 (3)	42.7 (32)	53.3 (40)	100.0 (75)
		30대	1.3 (1)	4.0 (3)	58.7 (44)	36.0 (27)	100.0 (75)
		40대	- (0)	12.0 (9)	54.7 (41)	33.3 (25)	100.0 (75)
	여성	10대	1.3 (1)	1.3 (1)	24.0 (18)	73.3 (55)	100.0 (75)
		20대	- (0)	- (0)	20.0 (15)	80.0 (60)	100.0 (75)
		30대	- (0)	- (0)	30.7 (23)	69.3 (52)	100.0 (75)
		40대	- (0)	2.7 (2)	28.0 (21)	69.3 (52)	100.0 (75)

130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한

131

부
록

조사B의 전체응답

조사B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Q6. 성적 동이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0.5 (2)	0.9 (4)	5.6 (24)	93.0 (398)	100.0 (428)
Q7. 성적 동이는 명시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구해야 한다	3.5 (15)	3.3 (14)	21.7 (93)	71.5 (306)	100.0 (428)
Q8. 성적 동이는 잠들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6.3 (27)	1.2 (5)	5.4 (23)	87.1 (373)	100.0 (428)
Q9. 성적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동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5)	7.9 (34)	26.2 (112)	64.7 (277)	100.0 (428)
Q10.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 (0)	1.4 (6)	10.0 (43)	88.6 (379)	100.0 (428)

성적 의사소통 경험(11~16번 문항)

조사A의 전체, 성별, 연령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Q11.	전체	1.0 (6)	13.0 (78)	49.5 (297)	36.5 (219)	100.0 (600)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남성	1.0 (3)	13.7 (41)	51.0 (153)	34.3 (103)	100.0 (300)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여성	1.0 (3)	12.3 (37)	48.0 (144)	38.7 (116)	100.0 (300)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	10대	3.3 (5)	18.7 (28)	48.0 (72)	30.0 (45)	100.0 (150)
받는다	20대	- (0)	9.3 (14)	46.0 (69)	44.7 (67)	100.0 (150)
	30대	- (0)	10.0 (15)	52.7 (79)	37.3 (56)	100.0 (150)
	40대	0.7 (1)	14.0 (21)	51.3 (77)	34.0 (51)	100.0 (150)
Q12.	전체	13.2 (79)	39.0 (234)	40.0 (240)	7.8 (47)	100.0 (600)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남성	8.0 (24)	37.7 (113)	46.0 (138)	8.3 (25)	100.0 (300)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여성	18.3 (55)	40.3 (121)	34.0 (102)	7.3 (22)	100.0 (300)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10대	20.0 (30)	48.0 (72)	24.7 (37)	7.3 (11)	100.0 (150)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20대	16.0 (24)	38.7 (58)	38.0 (57)	7.3 (11)	100.0 (150)
	30대	8.0 (12)	35.3 (53)	47.3 (71)	9.3 (14)	100.0 (150)
	40대	8.7 (13)	34.0 (51)	50.0 (75)	7.3 (11)	100.0 (150)

132

성
적
의
사
소
통
경
험
의
경
향

133

부
록

Q13.	전체	1.7 (10)	15.3 (92)	45.0 (270)	38.0 (228)	100.0 (600)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남성	3.0 (9)	19.7 (59)	50.0 (150)	27.3 (82)	100.0 (300)
하고 싶지 않을 때	여성	0.3 (1)	11.0 (33)	40.0 (120)	48.7 (146)	100.0 (300)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10대	1.3 (2)	16.7 (25)	43.3 (65)	38.7 (58)	100.0 (150)
표현한다	20대	2.7 (4)	11.3 (17)	50.0 (75)	36.0 (54)	100.0 (150)
	30대	2.0 (3)	15.3 (23)	44.0 (66)	38.7 (58)	100.0 (150)
	40대	0.7 (1)	18.0 (27)	42.7 (64)	38.7 (58)	100.0 (150)
Q14.	전체	15.3 (92)	38.7 (232)	37.5 (225)	8.5 (51)	100.0 (600)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남성	5.3 (16)	27.7 (83)	54.0 (162)	13.0 (39)	100.0 (300)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	여성	25.3 (76)	49.7 (149)	21.0 (63)	4.0 (12)	100.0 (300)
	10대	24.0 (36)	40.0 (60)	30.7 (46)	5.3 (8)	100.0 (150)
	20대	12.7 (19)	44.7 (67)	32.7 (49)	10.0 (15)	100.0 (150)
	30대	10.0 (15)	34.0 (51)	42.7 (64)	13.3 (20)	100.0 (150)
	40대	14.7 (22)	36.0 (54)	44.0 (66)	5.3 (8)	100.0 (150)

Q15. 나는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	전체	51.5 (309)	34.7 (208)	11.5 (69)	2.3 (14)	100.0 (600)
	남성	51.0 (153)	38.0 (114)	9.3 (28)	1.7 (5)	100.0 (300)
	여성	52.0 (156)	31.3 (94)	13.7 (41)	3.0 (9)	100.0 (300)
	10대	53.3 (80)	35.3 (53)	9.3 (14)	2.0 (3)	100.0 (150)
	20대	57.3 (86)	30.0 (45)	10.7 (16)	2.0 (3)	100.0 (150)
	30대	45.3 (68)	37.3 (56)	13.3 (20)	4.0 (6)	100.0 (150)
	40대	50.0 (75)	36.0 (54)	12.7 (19)	1.3 (2)	100.0 (150)
	Q16.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전체	1.3 (8)	11.0 (66)	40.8 (245)	46.8 (281)
남성	2.3 (7)	9.7 (29)	46.0 (138)	42.0 (126)	100.0 (300)	
여성	0.3 (1)	12.3 (37)	35.7 (107)	51.7 (155)	100.0 (300)	
10대	2.0 (3)	12.0 (37)	38.7 (58)	47.3 (71)	100.0 (150)	
20대	1.3 (2)	5.3 (8)	38.0 (57)	55.3 (83)	100.0 (150)	
30대	0.7 (1)	8.7 (13)	47.3 (71)	43.3 (65)	100.0 (150)	
40대	1.3 (2)	18.0 (27)	39.3 (59)	41.3 (62)	100.0 (150)	

134

독립적인 표의 사용

135

부록

조사A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응답

	성별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Q11.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다	남성	10대	4.0 (3)	21.3 (16)	53.3 (40)	21.3 (16)	100.0 (75)
		20대	- (0)	10.7 (8)	41.3 (31)	48.0 (36)	100.0 (75)
		30대	- (0)	8.0 (6)	57.3 (43)	34.7 (26)	100.0 (75)
		40대	- (0)	14.7 (11)	52.0 (39)	33.3 (25)	100.0 (75)
	여성	10대	2.7 (2)	16.0 (12)	42.7 (32)	38.7 (29)	100.0 (75)
		20대	- (0)	8.0 (6)	50.7 (38)	41.3 (31)	100.0 (75)
		30대	- (0)	12.0 (9)	48.0 (36)	40.0 (30)	100.0 (75)
		40대	1.3 (1)	13.3 (10)	50.7 (38)	34.7 (26)	100.0 (75)
Q12.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남성	10대	13.3 (10)	46.7 (35)	33.3 (25)	6.7 (5)	100.0 (75)
		20대	10.7 (8)	33.3 (25)	42.7 (32)	13.3 (10)	100.0 (75)
		30대	1.3 (1)	34.7 (26)	53.3 (40)	10.7 (8)	100.0 (75)
		40대	6.7 (5)	36.0 (27)	54.7 (41)	2.7 (2)	100.0 (75)
	여성	10대	26.7 (20)	49.3 (37)	16.0 (12)	8.0 (6)	100.0 (75)
		20대	21.3 (16)	44.0 (33)	33.3 (25)	1.3 (1)	100.0 (75)
		30대	14.7 (11)	36.0 (27)	41.3 (31)	8.0 (6)	100.0 (75)
		40대	10.7 (8)	32.0 (24)	45.3 (4)	12.0 (9)	100.0 (75)

Q13.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	남성	10대	1.3 (1)	21.3 (16)	49.3 (37)	28.0 (21)	100.0 (75)	
		20대	5.3 (4)	14.7 (11)	49.3 (37)	30.7 (23)	100.0 (75)	
		30대	4.0 (3)	22.7 (17)	50.7 (38)	22.7 (17)	100.0 (75)	
		40대	1.3 (1)	20.0 (15)	50.7 (38)	28.0 (21)	100.0 (75)	
	여성	10대	1.3 (1)	12.0 (9)	37.3 (28)	49.3 (37)	100.0 (75)	
		20대	- (0)	8.0 (6)	50.7 (38)	41.3 (31)	100.0 (75)	
		30대	- (0)	8.0 (6)	37.3 (28)	54.7 (41)	100.0 (75)	
		40대	- (0)	16.0 (12)	34.7 (26)	49.3 (37)	100.0 (75)	
	Q14.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	남성	10대	14.7 (11)	45.3 (34)	36.0 (27)	4.0 (3)	100.0 (75)
			20대	1.3 (1)	30.7 (23)	49.3 (37)	18.7 (14)	100.0 (75)
			30대	1.3 (1)	17.3 (13)	60.0 (45)	21.3 (16)	100.0 (75)
			40대	4.0 (3)	17.3 (13)	70.7 (53)	8.0 (6)	100.0 (75)
		여성	10대	33.3 (25)	34.7 (26)	25.3 (19)	6.7 (5)	100.0 (75)
			20대	24.0 (18)	58.7 (44)	16.0 (12)	1.3 (1)	100.0 (75)
			30대	18.7 (14)	50.7 (38)	25.3 (19)	5.3 (4)	100.0 (75)
			40대	25.3 (19)	54.7 (41)	17.3 (13)	2.7 (2)	100.0 (75)

136

독립적 선택의 자유


137

부부

Q15 나는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	남성	10대	52.0 (39)	38.7 (29)	9.3 (7)	- (0)	100.0 (75)	
		20대	60.0 (45)	26.7 (20)	12.0 (9)	1.3 (1)	100.0 (75)	
		30대	45.3 (34)	42.7 (32)	6.7 (5)	5.3 (4)	100.0 (75)	
		40대	46.7 (35)	44.0 (33)	9.3 (7)	- (0)	100.0 (75)	
	여성	10대	54.7 (41)	32.0 (24)	9.3 (7)	4.0 (3)	100.0 (75)	
		20대	54.7 (41)	33.3 (25)	9.3 (7)	2.7 (2)	100.0 (75)	
		30대	45.3 (34)	32.0 (24)	20.0 (15)	2.7 (2)	100.0 (75)	
		40대	53.3 (40)	28.0 (21)	16.0 (12)	2.7 (2)	100.0 (75)	
	Q16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남성	10대	4.0 (3)	10.7 (8)	50.7 (38)	34.7 (26)	100.0 (75)
			20대	1.3 (1)	5.3 (4)	33.3 (25)	60.0 (45)	100.0 (75)
			30대	1.3 (1)	8.0 (6)	53.3 (40)	37.3 (28)	100.0 (75)
			40대	2.7 (2)	14.7 (11)	46.7 (35)	36.0 (27)	100.0 (75)
		여성	10대	- (0)	13.3 (10)	26.7 (20)	60.0 (45)	100.0 (75)
			20대	1.3 (1)	5.3 (4)	42.7 (32)	50.7 (38)	100.0 (75)
			30대	- (0)	9.3 (7)	41.3 (31)	49.3 (37)	100.0 (75)
			40대	- (0)	21.3 (16)	32.0 (24)	46.7 (35)	100.0 (75)

조사B의 전체응답

조사B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Q11. 나는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연인과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다	5.4 (23)	20.3 (87)	34.3 (147)	40.0 (171)	100.0 (428)
Q12.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말로 확인하기 보다는 느낌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23.8 (102)	35.7 (153)	35.5 (152)	4.9 (21)	100.0 (428)
Q13.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잘 표현한다	4.0 (17)	23.1 (99)	33.2 (142)	39.7 (170)	100.0 (428)
Q14.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편이다	15.4 (66)	39.5 (169)	32.7 (140)	12.4 (53)	100.0 (428)
Q15. 나는 옷차림, 표정 등으로 인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했다고 오해 받은 적 있다	34.3 (147)	22.9 (98)	27.3 (117)	15.4 (66)	100.0 (428)
Q16. 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한다	0.5 (2)	7.7 (33)	24.8 (106)	67.1 (287)	100.0 (428)

펴낸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김혜정
펴낸날 2022년 4월 1일
편집 김신아
제작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김신아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 및 체크리스트 박아름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한소망
디자인 무난한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상담) 02-338-5801 (사무) 02-338-2890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www.sisters.or.kr
후원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장이 '정조에 관한 죄'였던 시대,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의
문제임을 알리고 평등과 인권을 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8만 6천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통해
수동적인 대상으로 성애화되는 여성, 소수자들의
억압된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정의하는 균열과 변화에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분법적 성별권력관계 구조,
여성의 몸과 성을 규범화하는 통념, 차별과 혐오를
확대하는 사회문화에 맞서 평등하게 관계 맺고 나다운
모습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후원 안내

정기·일시 후원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문자후원 (건당 3,000원)

#2540-1991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서 스며드는 변화

<p>연인, 부부, 파트너끼리는 언제든지 묻지 않고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을까?</p> <p>만약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다면 나는 상대와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걸까?</p>	<p>내가 동의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p> <p>상대가 내 동의를 구할 때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은?</p>	<p>내가 아는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p> <p>그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이유는?</p>	<p>내가 아는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p> <p>그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이유는?</p>	<p>내가 거절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p> <p>“글쎄....” “잘 모르겠어.” “마음대로 하세요.”</p> <p>이건 동의일까?</p>
<p>상대가 동의 또는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은 뭐가 있을까?</p> <p>나는 나의 성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쉽다 VS 어렵다</p>	<p>싫다고 하는 상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수락을 받아냈다.</p> <p>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을까?</p>	<p>내가 아는 성매개감염,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검색 가능)</p> <p>만약 내가 성매개감염에 걸렸다면 말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 이유는?</p>	<p>내가 상대의 동의를 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p>	<p>내가 아는 피임 방법, 서로 걸치지 않게 1개씩 말하기(검색 가능)</p> <p>그 피임 방법은 사용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 이유는?</p> <p>성적 행위 중 상대의 의사를 여러 번 묻는 건 분위기 깰까?</p>
<p>미디어 속 주인공이 만취해서 필름이 끊겼는데 눈을 떠 보니 알몸으로 다른 사람과 누워 있다.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내가 하는 생각은?</p>	<p>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하게 됐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p>	<p>나는 상대가 동의를 구할 때 내키지 않지만 수락한 경험이 있다 VS 없다</p>	<p>내 기준 피임, 성매개감염, 관계 형태 등에 관해 합의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p>	

알아보기

1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 8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11

조사 배경 11

조사 및 분석 방법 14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19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27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 46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58

결론: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81

성
적
동
의

준비하기

2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 85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90

부록1.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해설 106

부록2.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108

**부록3.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설문지 및 응답표 110**